

# MFR 5기 종합보고서

이집트인 의식구조 파악 및 기  
독교 현황으로 본 선교전망제언  
및 중동지역 사역보고

# 목 차

제 1장	MFR 개요.....	5
제 2 장	주제보고서.....	10
제 3 장	사역보고서.....	38

## 부록

# 제 1 장

## MFR 개요

## 목차

### 1. 1. MFR 개요.....7

(1)(1) MFR이란?

(2)(2) MFR의 목적

(3)(3) MFR의 목표

(4)(4) MFR 연혁

### 2. 2. MFR 5기.....8

(1)(1) MFR 5기 구성

(2)(2) 5기 리서치 일정

## 1. MFR 개요

### (1) MFR이란?

Middle-East Field Research는 한동 아시아 지역 연구소의 산하 기관으로서 CFR(China Field Research) 와 SFR(South East Field Research), IFR(India Field Research), SPFR(South Pacific Field Research)와 함께 만들어진 지역 현장 조사 팀이다. 2001년 5월말 중동 지역을 위한 리서치팀이 구성되었으며 2001년 12월에 1기 MFR이 중동 5개 지역 리서치를 다녀오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 (2) MFR의 목적

MFR은 중동 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연구 활동을 통해 중동 지역의 실체성을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보고하고 전달함으로써 현장의 영적, 일반적인 상황과 필요를 알린다. 아울러 단기 미션팀 활동을 통하여 현지 선교사의 필요를 채우며, 중동 지역의 중보자들과 네트워크하며 궁극적으로는 선교 헌신자를 세우고 동원함으로써 중동 지역 복음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3) MFR의 목표

Worshiper(예배자)

Field Researcher(현장 전문가)

Reporter(보고자)

Intercessor(중보자)

### (4) MFR의 연혁

2001년 5월, CFR 5기 훈련강의 가운데 중동지역으로 콜링

2001년 9월부터 매주 화요일 8시~11시까지 정규모임 시작

2001년 12월 20일~2002년 1월 25일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터키, 그리스 리서치

2002년 4월 4일 2기 훈련팀 10주 훈련 시작

2002년 7월 8일~8월 8일 터키, 이란 리서치

2002년 9월 18일 3기 훈련팀 10주 훈련 시작

2003년 1월 7일~2월 5일 아랍 에미리트 리서치

2003년 4월 4일 4기 훈련팀 10주 훈련 시작

2003년 7월 7일~8월 10일 요르단, 이라크 리서치

## 2. MFR 5기

### (1) MFR 5기 구성

### (2) 5기 리서치 일정

#### 1) 터키

2003/12/27 : 이스탄불 공항 도착  
                  숙소로 옮김  
2003/12/28 : ‘부흥’교회 방문  
2003/12/29 : 블루모스크, 보아지치 대학교 방문

#### 2) 이집트

2003/12/29 : 카이로 공항 도착  
2003/12/30 : 미느프 도착, 마을 둘러보기  
2003/12/31 : 에피스쿠파 스쿨 방문, New Year’s Eve party 참여  
2004/1/1 : 미느프 청년들 인터뷰, 무жат담 도착(숙소)  
2004/1/2 : 애굽한인교회에서 예배  
                  칸 알칼릴리 방문  
                  후세인 모스크와 알-아즈하르 모스크 방문  
                  기자 피라미드 방문  
                  카림과 인터뷰  
2004/1/3 : 박물관 방문  
                  미단 딸라뜨 하룹 리서치  
                  김동문 선교사님과 만남  
2004/1/4 : 카이로 대학 방문  
2004/1/5 : 람세스 기차역과 주변 리서치  
                  나일 힐튼과 람세스 힐튼에서 교통편 알아보기  
2004/1/6 : 중간점검 및 회의  
                  카이로 대학 주변 리서치  
2004/1/7 : St. George Coptic church 방문, 크리스마스 파티 참석  
2004/1/8 : 팀을 나눠서 리서치-AUC, 나일힐튼, 모스크

가스르두바라 교회 찬양집회

- 2004/1/9 : 팀을 나눠서 리서치-무жат담 쓰레기 마을, 나스르 모스크  
St. George Coptic church의 사제와 인터뷰  
2004/1/10 : 성 마카리우스 수도원 방문  
알렉산드리아 방문-성 마가 교회, 콰이트베이  
2004/1/11 : 칸 알칼릴리, 마디 카이로한인교회에서 예배  
2004/1/12 : 전략회의 및 뒷정리, 이스라엘로 출발

3) 이스라엘

- 2004/1/13 : 베들레헴 알렉산더 호텔 도착  
2004/1/14 : 아데샤 난민촌 방문  
예수 수태 교회 방문  
기독교청년들과 함께 식사, 예배  
2004/1/15 : 베들레헴 대학교 방문  
팔레스타인 리서치 센터 방문  
임마누엘 개신교 교회 청년모임 참석  
2004/1/16 : 예루살렘 돌아보기  
2004/1/17 : 한국 문화 행사에서 봉사  
2004/1/18 : 예배, 벤후리온 공항에서 출발

# 제 2 장

## 주제보고서



## 목차

1. 리서치 주제.....12
2. 이집트 개관.....13
3. 종교연구를 통한 이집트인들의 의식구조 파악.....15
4. 물질문화 안에서 살고 있는 현재 이집트인들의 의식구조 파악.....24
5. 기독교의 현재 상황과 선교 방향을 전망.....31

## 1. 리서치 주제

### 1) 주제

이집트인들의 의식구조를 구성하는 3가지 신앙과 물질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독교의 현재 역할과 선교 방향을 전망한다.

### 2) 주제설명

이집트인들의 의식을 지배해 온 세 가지 흐름이 있는데 그것은 콥틱교, 이슬람, 고대신앙 이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위에 물질문화가 현대의 이집트인들의 의식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또다른 요소가 되고 있다. 이 가운데 기독교의 현재 위치와 실제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선교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알아본다.

## 2. 이집트 개관

(1) **국명** : 이집트 아랍공화국 (The Arab Republic of Egypt)

(2) **수도** : 카이로 (인구 약 1,500 만명 추정)

주요도시: 알렉산드리아, 룩소, 수에즈, 포트사이드, 아스완

(3) **면적** : 1,102,000 km<sup>2</sup> (한반도의 약 5 배)

- 전국토의 95%가 사막
- 거주 가능 면적은 나일 강변을 주위로 약 3%정도

(4) **기후** : 카이로를 비롯한 델타지역은 반사막기후

지중해 연안이 지중해성 기후

그 외 지역은 사막기후

(5) **인구** : 6,270 만명 (96/97)

- 아랍권 국가중에서 가장 많음.
- 인구의 50%가 도시 거주 (그 중 20%는 카이로 거주)

(6) **민족** : 이집트인(Egyptian), 베두인(Bedouins)으로 구성된 헵족이 99%를 차지하고, 그리스인, 누비아인, 아르메니아인 등의 소수 민족이 있음.

(7) **정치** : 사다트 대통령(1970~81)은 소련의 지배를 종식시키고 수에즈 운하와 시나이 반도의 유전지역을 획득케 했다. 1979년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었으나 많은 아랍국가들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또한 국내의 회교 근본주의자들까지 그 조약을 반대하여 이집트는 중동에서 고립되고 사다트는 암살되기에 이르렀다. 현재의 무바라크 대통령 정부는 조심스럽게 정치 자유화를 도입하여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 개선을 꾀하고 있다.

(8) **경제** : 화폐단위- 이집트 파운드 (£E)

GDP - 3,700 억불(2001 년), 1\$ = LE 5.5 (2003.3)

무역 - 수출 : 13,894 만불 (원유, 화학제품)

- 수입 : 43,135 만불 (전자, 전기, 자동차, 기계)

이집트의 주요 요소 - tourism, oil, suez canal dues (농업-14%, 산업-30%, 서비스-56%)

실업 비율 : 12%(2001)

- (9) **교육** : 의무교육 9 년, 문맹률 49%  
(초등 6 년, 중등 3 년, 고등 3 년, 대학 4 년)
- (10) **종교** : 수니파 이슬람교(88%, 수니파)  
쿠팅교, 기독교 (12%, 실제로는 약 20%로 추정)
- (11) **언어** : 아랍어(공용어), 영어 및 불어 통용(식자사회)
- (12) **시차** : GMT + 2 (한국시간보다 7 시간 늦음)  
5 월-9 월간은 썸머타임 실시로 6 시간 차이 남 (GMT+ 3)

### 3. 종교연구를 통한 이집트인들의 의식구조 파악

#### 1. 이집트 3대 종교연구의 목적

: 고대신앙(다신교), 콥트, 이슬람. 이상 세 종교는 역사적으로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집트를 삼등분 할 수 있는 문화의 큰 축이다. 이들 종교를 이해하는 것은 이집트인들의 문화적 기초를 이해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고대종교의 이해를 통해 현대 이집트인들의 세계관과 생각을 알 수 있으며, 콥트를 통해 이천년간 내려온 그들의 혼과 정신성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대 종교를 통해 이루어진 이집트인들의 세계관과 생각은 이슬람을 통해 그들의 행동과 사상, 그리고 현재 그들의 움직임으로 드러나게 된다.

#### 2. 역사(종교를 중심으로 한 역사, 종교 변천사)

##### (1)개관

BC8000년, 나일강 유역에서 농경생활이 시작, 최초의 고대 문명의 시작.

BC3000년, 이후 파라오(Pharaoh)에 의한 통치가 시작

이 시기부터 신화의 발생, 지역마다 지방신 섬김.

BC 1352-1336 신왕조 세대, 아케나텐왕, 종교개혁으로 일신교 신봉, 그의 사후 다시 다신교로 회귀

그리스-로마 시대, 세라피스신(고대이집트의 신, 그리스의 신 등을 섞어 세운 합성신)을 숭배하기도 함

AD 65, 알렉산드리아에서 St. Mark에 의해 기독교 전파(콥트교의 시작)

AD 200년 경, 기독교의 전성기

AD 451년, 콥트교 칼케돈 공의회에 의해 이단 판정, 이후 독자적인 노선 구축

AD 642년, 이슬람의 이집트 정복

AD 975년, 카이로에 이슬람 대학인, Azar대학 설립.

현재, 88%정도의 이슬람과 12%의 기독교(콥트, 카톨릭, 개신교 포함)인들이 있다.

##### (2)종교의 변천

고대

다신교

일신교(BC1352 -BC1336)

다신교

그리스-로마그리스-로마 혼합종교

AD 0

크리스트교 발생

로마제국                      콥트교(AD 65)  
                                    단성론 주장으로 콥트교 이단 판정(AD 451)  
                                    이슬람 태동(610)  
그 이후                      이슬람 이집트 정복(642)  
                                    1517년 터키 술탄 셀림 1세에 의해 이집트 완전 정복.

### (3)현재

#### 1) 이슬람은 지금 이집트의 국교로 되어 있다.

- Id card에는 자신의 종교가 표시되어 있다. (이름에서도 종교가 반영된다.)
- 학교를 다닐 때에도 주민등록상의 종교에 따라 학교를 가게 된다.
  - 무슬림이면, 이슬람학교, 크리스천이면, 크리스천학교를 간다.
- 결혼에 대한 규제
  - 무슬림 남자와 기독교인 여자는 결혼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반대는 허락되지 않는다.  
⇒ 이렇게 해서 낳는 자녀는 무슬림으로 등록된다. 아버지의 종교를 따라간다.

## 3. 고대종교

### (1) 숭배하는 신은 지방마다 다른 신을 가졌다.

#### 1) 신은 두 종류가 있다.

- 이집트 인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숭배되어지는 신.
  - 우주탄생과 관련, 신화에 나타나는 신이다.  
Ex) Nun(눈)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 모든 비밀을 품고 있으며 원초의 바다로 묘사되어진다.
  - 한 지방에서만 숭배되어지는 신.  
: 지리적 위치, 특정 집단에서 나타난다.

#### 2) 한 지방의 신은 그 곳 주민에게만 숭배되며, 특유의 관습과 전통을 가진다.

#### 3) 지방신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은 정치, 경제적 번영과 관련있다.

- 지방이 번영하면 지방신은 더 높은 신으로 승격된다.
- 멤피스의 Ptah(프타하), 룩소르의 Amon(아몬), 헬레폴리스의 Ra(라)  
-이 신들은 자기 지방의 경제적, 정치적 번영으로 승격된 신이다.

### (2) 현재 남아있는 고대신앙의 영향

#### 1) 관광국가 이집트

- 관광자원의 대부분은 역사적 문화재들이다.

- 피라미드, 파라오 상, 이집트박물관(카이로), Khan El khalili(칸 엘 칼리)

## 2) 장례식과 그들의 무덤에서 알 수 있는 고대 종교의 영향

- 부활신앙 : 이들은 죽은 뒤 부활하게 되며 살아있을 때와 같이 살아간다.

- 부활신앙은 이들의 무덤과 장례의식에 영향을 준다.

- 장례식의 특징

장례는 주로 1일이나 2일만에 끝난다. 오래 가지 않는다.

- 시신은 방부처리가 되어 보존되도록 한다.

- 특별한 상여꾼의 고용은 없다. 장례를 본 사람들은 모두가 관을 들어줌 으로서 고인에 대한 예의를 표한다.

- 무덤의 특징

- 무덤은 집 구조를 따서 만들어져 있다.

- 무덤은 도시와 붙어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 이들은 조상의 영혼이 자신들을 보호해준다고 생각한다.

⇒ 죽은 이와 가까이 하려 하는 문화, 무덤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생각보다 규모는 엄청나다.

⇒ 시내의 서민 아파트보다 무덤집의 시세가 더 높다.

- 시신은 매장되는 것이 아니라, 무덤집 안에 안치된다.

## 4. 콥트교 (Copt<sup>1</sup>.)

### (1) 콥트교의 역사

#### 1) 콥트교의 기원

- 성 마가가 AD 65년 알렉산드리아에서 복음전파를 한 것이 이집트 콥트교의 시작

#### 2) 콥트교의 성장

- 2세기 경에는 이집트 전역으로 전해져 대부분이 기독교인이 되었다.
- AD 200년 경부터 신약성경이 콥트어로 기록되기 시작
- 수도원 제도가 처음으로 생겨남
  - The Monastery of St. Macarius 등.

#### 3) 콥트교의 쇠퇴

- 451년 칼케돈 공의회(Council of Chalcedon)에 의해 이단 판정

<sup>1</sup> Copt 라는 명칭은 이집트 인을 뜻하는 그리스어 Aigiptioi가 아랍어의 Kibt, Kubt로 와전되어 유래된 것이다.

- 칼케돈 공의회 : 451년 로마 교황 레오 1세의 요청으로 동로마 황제 마르키아누소가 소아시아의 칼케돈에서 소집한 제 4회 세계교회 회의
- 이후 독자적인 교황을 세워
- 7 세기경 아랍군의 이집트 정복

## (2) 콥트교인들의 현재

### 1) 신앙

짧은 리서치를 통해 그들의 신앙을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들이 준 성경공부 교재를 통해 학기중에 신앙을 이해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기독교와 특별히 다른 면만 언급한다.

콥트교인들과의 대화에서 알아낸 사실들이며, 콥트교인들마다 그들의 신앙은 조금씩 다르다.

- 성자와 프리스트
  - 성자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매신저이다.
    - ⇒ 하나님은 너무 높이 계신다. 성자는 천국에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 전하는 역할을 한다.
  - 프리스트를 통한 예배
    - ⇒ 프리스트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갈 수 있다.
    - ⇒ 프리스트는 우리의 신앙을 잡아준다.
- 예배
  - 하루 두 번의 미사, 그 외에도 많은 예배
  - 평신도 찬양인도, 기도 등과 같은 평신도들의 참여는 거의 없다.
    - ⇒ 사제권을 중히 여기는 콥틱 교회는 priest만이 예배를 이끌 수 있다.
  - 예배는 매우 감각적이다.
    - ⇒ 보고 만지고 냄새맡는 등 오감을 모두 사용한다.

### 2) 수도원과 교회

- The Monastery of St. Macarius
  - AD 360년 6명의 수도사로 시작 현재 100명의 수도사와 700명의 자원봉사자가 있다.
  -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영적 부흥을 위해 이 수도원을 찾아온다.
  - 성자들의 유해와 아이콘이 소장되어 있다. 보고 만질 수 있음.
- 무궛담의 콥틱교회
- St. George Church – 헬리오폴리스(카이로)
- 성 마가 교회 – 알렉산드리아
  - 성 마가의 유골이 안장되어 있다.

### 3) 상징

- Icon



- Icon은 성자와 관련되어 남겨진 유물들이다. 성자의 초상, 혹은 성자의 십자가 등이 있다.
- 여기에 입을 맞추고 손을 대는 것은 중요한 예배의식이다. 사람들은 수시로 지나가면서 입을 맞추고 손을 댄 뒤 성호를 긋는다.
- 십자가 : 십자가의 모양은 약간씩 다른데 모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 평범한 십자가
    - ⇒ 네 방향은 Mark, Luke, John, Matthew를 의미한다
  - 십자가 끝이 세 갈래로 갈라진 십자가
    - ⇒ Trinity를 상징
  - 두 갈래로 갈라진 십자가
    - ⇒ 예수의 Divine Nature, Human Nature를 의미한다.
- 그 외의 상징
  - 물고기모양의 익투스
    - ⇒ Jesus Christ the Son of God Savior
  - 조개
    - ⇒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순례자, 우리의 모습
  - 물고기
    - ⇒ 크리스천을 상징

#### 4) 콥트인들의 정체성

콥트인들은 이슬람의 이집트 정복 이후 소수파의 길을 걸어오게 되었다. 그렇게 때문에 생긴 이들의 정신은 아주 굳고 견고하게 서있으며 이슬람 문명에 뒤지지 않는 문화를 가지게 되었다. 그들의 특별한 예배를 통해 그들은 자신들이 콥트교도임을 자각하고 정통성을 확립한다.

이들은 2000년간 이어온 자들로서 이집트 내의 남은 자들로 있지만 이들에게는 현재 콥트인으로서 무슬림들에게 영향력을 가지지 못한다. 이들에게 이제 새로운 도전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 5. 이슬람

### (1) 이슬람교의 역사

#### 1) 무하마드

- 570년 무하마드 출생
- 610년 하늘로부터 계시
  - 이슬람교의 출발
- 632년 무하마드 사망
  - Aib-Bakr가 무슬림의 수장으로 이슬람에 대항하는 세력들을 제압해나감

- Qur`an(꾸란) 정리

## 2) 무하마드 이후. 이집트의 이슬람.

- 642년 이슬람의 이집트 정복
- 975년 이집트에 최초의 이슬람대학 “Azar” 설립

## (2) 이슬람의 교리

### 1) 무슬림들의 6가지 중요한 믿음

- Allah
  - 이름의 기원 : 아라비아의 전통적인 신 중 하나, 부족신 가운데 가장 높은 신의 이름이다.
  - 무하마드에 의해 알라는 유일신으로 정리되었다.
  - 알라의 특징
    - ⇒ 유일한 신, 창조주, 심판자, 전능자, 영원하다.
    - ⇒ 누구의 아버지도 아니며, 아들도 가지고 있지 않다.
- 천사
  - 천사는 알라가 창조한 영적인 존재이다.
    - ⇒ 하지만 신성은 없으며, 권위가 없다.
    - ⇒ 찬양의 대상이 아니며 기도의 대상이 아니다.
  - 사람들의 선행과 악행을 기록하는 천사가 있다.
  - 천사의 종류(앞의 네 천사는 네 명의 천사장으로 가장 높은 천사이다.)
    - ⇒ Gabriel(게시의 천사), Michael(섭리의 천사), Israfil(파멸의 천사), Izrail(죽음의 천사), Malik(지옥의 천사), 타락한 Iblis(사단의 우두머리가 됨)
  - 영적인 존재로 천사와 인간 사이에 Jinn이 있다.
    - ⇒ 이들의 선과 악은 정해져 있지 않다. 악한 Jinn은 심판날에 지옥으로 간다.
- 책
  - 인류에게는 거룩한 책이 있는데 특별히 네 가지가 중요한 책이다.
    - ⇒ 토라(Taurat, 모세에게 준 책), 자브라(Zabra, 다윗에게 준 책), 인질(Injeel, 예수님에게 준 책), 그리고 꾸란(Quran, 무하마드에게 준 책)
  - 꾸란은 알라에게서 온 최종적인 계시로 알라의 완성된 마지막 계시이다.
- 선지자
  - 12만4000명 선지자와 315명의 사도만이 알라의 보냄을 받았다
  - 이 중 6명의 선지자(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무함마드)들만이 알라의 사명을 받았다.
  - 꾸란에서는 예수님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도 하지만 부정하기도 한다. 모순되는 면이 있다.

- 심판
  - 꾸란구절의 14%의 구절 속에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해 기록되었다.
  - 낙원에 대한 묘사는 물질적이며 향락적이다.
    - ⇒ 의로운 자들을 위해서는 그들이 마실 카프르가 혼합된 술을 마실 잔을 준비하였으며(꾸란 76:5)
    - ⇒ 그들은 금 실크로 장식된 내부에 있는 침대에 기대고 두 천국의 과실은 가까이 있도다(꾸란 55:54)
    - ⇒ 그 안에는 눈을 내려감은 어떤 인간과 진도 접촉하여 보지 못한 배우자가 있나니(꾸란 55:56)
  - 지옥은 악행의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져 있다.
  - Jahannam이라는 지옥이 부분이 있는데 이곳은 카톨릭의 연옥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
- 숙명(수니-Sunnis-무슬림 만 해당)
  - 알라만이 인간의 행위와 운명에 대해 유일한 결정권을 가진다.
    - ⇒ 알라의 뜻에 따라 인간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
    - ⇒ 인간의 선행과 악행도 전적으로 알라에게 달려 있다.

## 2) 이슬람의 5가지 중요한 행동규약

- 신앙고백 – Shahadah
  -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며, 무하마드는 알라의 사도이다.”
  - 전쟁, 장례식, 출생, 등 생활 속에서 수없이 많은 고백을 한다.
- 기도 – Salat
  - 하루에 5번의 기도를 해야 한다.
    - ⇒ 모스크에서는 총 6번의 기도가 있으며 이중 새벽과 마지막 기도는 둘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 기도하기 전에 해야 하는 것
    - ⇒ 몸의 일부를 씻는다.
    - ⇒ 여자의 경우 히잡을 쓴다.
    - ⇒ 메카를 향해 서서 기도를 한다.
- 구제금 – Zakat
  - 1년 수입의 40분의 1을 낸다. 하지만 가난한자, 구제금을 거두는 수집자, 노예, 채무자, 전쟁에 참여한 자는 제외된다.
- 금식 – Saum
  - 이슬람력으로 매년 9월 라마단 금식이 시작된다.
  -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금식이 지켜지며 30일 동안 계속된다.
  - 이 기간에는 천국문이 열리고 지옥문이 닫히며, 죄의 용서가 이루어진다.

- 순례 - Hajj

- 무슬림은 반드시 일생에 한번 메카 카바신전을 순례해야 한다.
- 사정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은 여비를 보조함으로써 순례를 마친것으로 간주된다.
- 순례를 마친 자들은 -Al haj Ji-라는 칭호를 받게 된다.

### 3) 믿음의 중심

- 꾸란

- 꾸란은 가브리엘이 무함마드에게 계시한 내용이다.
- 알라가 행한 기적이라고 여기며 꾸란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표현한다
  - ⇒ 허리아래로 들지 않으며 손을 씻고 꾸란을 만진다.
- 꾸란을 사용할때에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 주석을 사용한다.

- 전통(하디스)

- 하디스란 일종의 언행록으로 무함마드가 생전에 말한 것과 행한 것을 담고 있다. 제 2의 경전으로 여겨진다.
- 수니와 시아파는 다른 하디스를 가진다.
  - ⇒ 수니 : 무함마드의 언행들
  - ⇒ 시아 : 그 이후 알리와 그의 추종자들에서 나온 것.

- 샤리아

- 다섯가지의 중요한 이슬람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 종교적인 의무이며, 국가의 법이다.

### (3) 이집트의 이슬람의 모습

#### 1) 현재의 모습

- 히잡착용.

- 길에서 히잡을 벗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모스크 내에서는 히잡을 써야 한다.
  - ⇒ 하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

- 기도

- 기도시간은 매우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 매일의 기도시간을 나타내는 달력이 있을 정도.
- 남자에게만 나는 이마의 혹은 그들의 자랑거리이다. 주로 30대 이상의 남자에게서 나타난다.
- 이들은 중보기도의 개념이 없다.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한다.
- 금요일의 대예배시, 큰 모스크에서는 경찰이 지키게 된다.

- 믿음

- 알라에 대한 믿음은 있으나 구원의 확신은 없다.(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다.)

- 인샬라 : 모든 것은 알라의 의지이나 나의 삶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

⇒ Mahmoud와의 대화중..

## 2) 의미

이슬람과 서양문화가 충돌되는 부분은 이제 계속 서양문화에 잠식되어간다. 히잡착용이나,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것이나. 그리고 남녀가 사귀는 일에 있어서, 계속 열려지고 있다.

## 4. 물질 문화 안에서 살고 있는

### 현재 이집트인들의 의식구조 파악

이집트는 타 아랍국가와는 다르게 외부 문화와의 지속적인 접촉으로 실제적으로 다른 양상을 많이 띠고 있다. 서양 문물도 깊게 들어와 있으며 매년 다수의 관광객들의 방문으로 이집트인들은 물질에 굉장히 밝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화 접촉으로 나타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면을 살펴보고 미래에 이집트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의식 구조도 함께 조사해 보았다.

#### 1. 새로운 문화의 유입

##### (1) 서양 문물의 침투

##### 1) 미단 딸라프 하름(딸라프 하름 광장)

- 카이로 시내의 중심부에 있는 패션, 유행의 거리
- 의류, 신발 가게와 극장, 카페 등 젊은이들이 즐길 만한 장소가 모여 있다.
- 이집트에도 유명 패션 브랜드가 존재
  - : 소수 상류층만이 소유할 수 있다.
- 길거리 노상 행렬도 존재
  - :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거리의 모습
- 맥도날드, KFC, 피자헛 등 외국 패스트푸드점이 많다.
  - : 이곳의 물가로는 비싼 편이다.(햄버거 하나에 11~12LE)
  - 상류층 젊은이들이 주로 이용한다.
- 코스모폴리탄, 보그 등 미국 여성 잡지도 판다.
- 패션과 유행에 신경쓰는 이슬람 여성들
  - : 히잡이라는 굴레 안에서도 자유롭게 멋을 부린다.
- Metro 극장
  - : 미국 할리웃 영화들 상영.
  - 반년에서 1년 정도는 다른 나라보다 늦게 상영된다.
  - 이유는 엄격한 이슬람 문화에 적합한지 까다로운 검열을 거치기 때문이다.
- Miami 극장
  - : 이집트산 영화들 상영.
  - 미국 문물의 영향을 깊게 받아 대담한 성 묘사가 점차 자유로워지고 있다.
  - 부유층만이 극장 문화를 누리며, 관람비는 10LE 정도이다.

## 2) AUC 대학(American University in Cairo)

- 카이로에서 유일한 미국식 대학
- 미국 선교사가 세운 미션 스쿨의 목적으로 세운 학교
- 학교 안에서는 영어가 통용됨.
- 3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등록되어 있다.
- 서양 문물을 가장 가깝게 받고 있는 이집트 학생들이 많다. (힙합패션..)

## 3) 젊은이들이 서양 문화를 좋아하고 많은 영향을 받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 정도까지는 아니다.

- ☞ 카이로 대학생 6명에게 질문을 했는데 마이클 잭슨을 아느냐고 물었더니 당연히 다고 대답하였고 브리트니 스피어스나 노 다웃 같은 팝스타를 아느냐고 물었더니 모르는 눈치였다.
- ☞ 청년들의 여가활동 :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자신의 취미에 따라 여가를 즐기거나 친구들과 그저 앉아서 대화하는 것을 더 즐기고 있다.

### (1) 변화되고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생활

#### 1) 무슬림에 대한 우리의 편견이 바뀜

- 적극적이고 활기찬 모습
  - : 낮은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접근하며 남성들에게도 거리낌없는 젊은 여성들의 모습을 발견했다.
  - ☞ 리함과의 만남 : 18살. 여대생. 경영과 회계 전공
    - 이방인인 우리를 적극적인 자세로 대하며 카이로 대학 근처와 나일강 주변을 가이드해주며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였던 현지인 부유한 집 자녀처럼 보였다. 돈을 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으며 남동생은 비올라로 음악 공부를 한다고 했다.
- 남성과 여성의 자연스러운 어울림
- 무슬림 모두가 독실한 신자라고는 볼 수 없다.
  - : 부모의 종교를 자녀가 그대로 이어받으므로 신분만 무슬림인 자들도 많다.

## 2. 전통적인 관습과의 융합 또는 충돌

### (1) 긍정적인 면

#### 1) 이집트의 경제 추세

- 무역수지 : 매년 만성적인 적자

1992/93년도 무역적자는 73억 1천 5백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 서비스수지 : 항상 흑자 기록

수에즈 운하 수입과 관광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 해외송금 : 해외 노동자 송금이 72억 6천만 달러 기록(1992/93)

이전수입에 있어서는 해외노동자 송금에 크게 의존한다.

- 상품수출 : 석유 및 석유제품의 수출이 커다란 비중(1992/93년도 18억 3백만 달러)

## 2) 개성을 찾아가는 청년들

: 옷차림이나 자세 등에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발견해 나가는 젊은이들

## 3) 이슬람법에 의해 일부 다처제가 허용

: 그러나 경제적 측면을 중시하여 대부분 1명의 여성과 결혼한다.(주로 부계 4촌내 결혼)

## 4) 이집트 문화와 융합되어 새로운 문화 형성

☞ 이집트식 패스트푸드점(Momen) : 마치 우리나라의 롯데리아를 연상시킨다. 아랍 식 길다란 빵을 사용한 햄버거 등 이집트식과 퓨전시킨 패스트푸드를 판매하고 있었다.

## 5) 낙천적이고 친절하면서도 개인 이해관계가 철저한 사람들

: 타 종교에 대해서도 다른 아랍 국가에 비해 관대하다.

## 6) 음악, 연극, 시, 소설, 매스 미디어 등 예술과 대중 문화 부분에서 아랍 국가의 중심이 되고 있다.

## (2) 부정적인 면

### 1) 심한 공해와 오염

: 카이로 시내에는 수많은 승용차들과 버스가 내뿜는 매연으로 공기가 심하게 오염되어 있다. 물도 석회가 함유되어 있어 생수를 사 마셔야 한다.

### 2) 질서를 잃어버린 교통

- 횡단보도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음

: 사고의 위험이 크다.

-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교통 법규를 무시함



- 누구나 저렴하게 자동차를 소유하기가 쉬움 : 자동차 증가율이 올라감.

### 3) 동성애 문화 증가

### 4) 이혼률 증가

### 5) 교육의 문제점

- 암기식 주입식 교육
- 대부분이 과외를 받는다.
  - : 공교육의 무너짐으로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대부분의 학생들이 과외를 받는다.
  - 과외를 받지 않는 학생들은 교육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 학교 선생들도 방과 후에 따로 과외를 하여 돈을 번다.
  - 빈부에 관계 없이 과외는 모든 층의 학생들이 받는데 다만 좋은 시간대를 차지하여 과외를 받는 학생들이 부유층이라고 한다.
- 미래가 없는 교육
  - : 학생들이 비전을 갖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 6) 부유층과 서민의 격차 벌어짐

- : 서민이 범접할 수 없는 부유층만의 문화가 형성됨.

### 7) 실업률 증가

- 람세스 기차역
  - : 새벽부터 인력 시장이 서는 곳
  - ☞ 손에 종이책자 하나만을 든 각종 연령의 사람들이 무료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 인력난
  - ☞ 요금 징수하는 곳에서 돈을 계산하는 사람과 티켓을 건네주는 사람이 따로 있을 정도로 인력이 남아도는 실정이다. 그래서 쓸데없는 일자리가 많다.

### 8) 그들의 주된 관심사 - '돈'

- 관광객들을 향한 검은 손
  - : 고대 유물과 유적이 풍부하여 매년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므로 그만큼 외국인들을 통해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많다.
  - ☞ 기자 피라미드에서의 경험 : 걸어서 돌아보겠다는 우리에게 낙타를 타게 하려는 장사꾼이 거짓말을 하여 사기의 방법까지 동원
- 흥정문화 발달

: 시장이나 기념품 샵, 심지어 택시에서도 흥정을 하지 않으면 터무니없는 손해를 보는 일이 빈번하다.

● 다수의 위장 거지들

: 충분히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환경이 가능하면서도 외부인을 노린 위장 거지들이 많다.

☞ 어린 아이를 일부러 더럽게 입히고 구걸을 하라는 현지인 어머니를 목격한 경험

● 이 외에도 술한 돈에 얽힌 싸움들이 치열하다.

9) 테러의 위협에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곳

● 비밀경찰 존재

: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경찰 외에도 이방인이나 스파이를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는 비밀경찰들이 존재한다.

● 심한 출입통제

: 각종 관공서나 대학교의 방문객에 대한 출입을 통제한다.

3. 미래의 리더-청년들의 의식구조

(1) 현재 청년들의 모습

1) 공부에 지쳐 있다.

● 대학생들도 과외를 하며 공부한다. 낙제가 2번 나왔을 시 1년을 다시 다녀야 하는 체제가 성행되고 있으므로 다량의 학업량에 지쳐 있는 모습

● 여가 시간을 사용함에도 뚜렷하게 자신의 취미를 즐기는 것이 아닌 그저 친구들과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을 즐긴다.

2) 희망을 잃은 모습

● 낙후된 산업과 실업난 : 졸업 후에도 자신의 전공에 맞춘 뚜렷한 진로를 찾기 어렵다  
보통 청년들은 졸업 후 슈퍼마켓 같은 작은 사업을 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 청년들의 방황 : 술, 마약이 성행(이집트가 마약사용 2위라고 보는 학자도 존재)

3) 국가에 대한 말없는 불만

● 친미 정책과 중도주의 노선을 표방하고 있는 무바라크 현 정권에 대한 불만

● 이스라엘에 대한 강한 분노 : 카이로 내의 유대인 거주지에 돌을 던지는 사건이 빈번

● 낙후된 산업과 빈곤한 생활 수준에서 갈 곳을 잃고 있다.

## (2) 미노프 지역(Minuf)

## 1) 메노피아 공대 등 유명한 공대와 의대가 있는 지역

- 이집트 각지의 청년들이 모이는 곳

## 2) 지역

: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로어 이집트 (lower Egypt)라고 하는 북서 델타 지역에 위치한 미노피아의 중소도시로 인구 100만명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 3) 산업

- 주로 농경에 의지
- 미노프에서 1시간 정도 거리의 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많다.
- 대부분의 가정집에서 당나귀, 닭 등의 가축을 기른다.

미노프는 낙후되어 있지만 활기찬 시골마을이라는 느낌이였다. 길이 닦여져 있지 않아 모래와 먼지가 날리고 차선도 없이 자동차와 당나귀 수레가 썩씩 달린다.

## 4) 교육

- 에피스코파(Episcopal) 스쿨

: 미노프에서 가장 나은 여건을 갖춘 학교

크리스천 학교-카톨릭, 개신교, 콥틱의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

콥틱 교회와 함께 학교가 있다.

5학년 과정-4~12세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미노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유치원-수학, 아랍어, 영어, 종교 등을 배운다.

AUC 라이선스 습득 가능-특별 컴퓨터와 영어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 대상

등록금 - 공립학교:60 LE

사립학교:600 LE(무슬림 사립학교는 5000LE 정도)

장애인 클래스 - 20명 정도의 학생

오전에만 수업:말하는 법과 운동 등을 가르친다.

간단한 입학시험 존재

대부분의 교사는 크리스천

크리스천 학생은 한 반에 약 10명 정도이다.

크리스천 스쿨이긴 하나 미션 스쿨은 아니다.

: 무슬림 기도실도 존재

: 채플 시간도 따로 없다.

: 기독교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사실상 불가능-불법, 학부모들의 항의

- 메노피아 공과대학교

: 전체 학생 성적의 2% 안에 들어야 입학 가능한 학교

의사와 기술자가 전 중동을 커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음주의 개신교 청년들의 최대 목표 - 선교의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보완상의 이유로 외국인의 출입이 제한된다.

- 직업 교육 기관으로 미느프 병원 부속 간호학교가 여학생만을 교육하고 있다.
- preparatory school(초등학교 수준)이 10개, secondary school(중학교 수준)이 5개가 있다. 공립 초등학교의 경우 이슬람을 의무적으로 교육한다.

### (3) 기독교 청년들의 모습

#### 1) 미느프 지역의 청년들

- 이집트 각지에서 온 우수한 학생들
- 미느프 지역에서 지능이 좋은 엘리트들이 많이 나온다고 한다.

#### 2) 기독교 청년들

-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열정적인 모습
- 워십 댄스 사역팀  
: MFR 1기 남상수 선교사의 사역  
지난 여름 요르단 암만에서 순회 공연 사역을 했다.
- 현지 청년들을 통한 선교의 비전 발견

## 5. 이집트의 기독교 상황과 21C 선교전망

### 1. 들어가는 말

이슬람을 국교로 하고 있으면서도 콥틱 정교만은 인정하고 있다. 이슬람 신자를 다른 종교로 개종 시키지 않는 한 종교의 활동의 자유는 법률로 보장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문화적 차별과 종교간의 긴장은 존재한다. 국민의 85.4%는 이슬람 신자이고, 기독교 인구는 14.2%이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콥틱 정교회이고 복음적인 개신교의 인구는 0.85% 이고 2.7%의 정체된 성장세이다.(하지만 최근 6년 사이에 개종자 수가 이전 100년 동안의 개종자 수보다 많을 만큼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콥틱 정교회는 동유럽의 다른 정교회와 비교해서는 상당히 복음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인구 6500만 명의 거대한 모슬렘 국가이지만 콥틱 기독교라는 종교인이 전 인구의 약 10%에 이르고 있고 더욱이 개신교 교회까지도 약 1천 여 개나 존재한다.

### 2. 개신교 현황

1800년대 중반부터 이루어진 이집트 개신교의 역사는 이들 콥틱 기독교인에게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회심자 대부분이 모슬렘이 아닌 콥틱 기독교인 출신이다. 오랜 기간의 박해를 견디며 중동지역의 가장 많은 교회를 존재케 한 콥틱 교회는 아랍선교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비록 이들이 마리아와 성자들을 지나치게 숭배하는 등 개신교 신앙의 모습과 이질적인 부분이 있지만 콥틱 교회 내의 성경공부운동이 일어나는 등 긍정적인 분위기도 있다.

현재 이집트 땅에 개신교를 세운다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우선 당국에서 교회건축을 허가 받으려면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또한 대통령의 허락이 있어야 그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현지에서는 교회설립허가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땅을 사서 개인 명의로 건물을 짓고 교회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우리가 방문한 애굽 한인 교회는 성공회의 건물을 금요일에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카이로에는 한인 교회가 약 5교회 정도 있는데 주로 해외 출장차 나온 사람이나 여행사 등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선교적 관점으로 바라 볼 때 최근 6년 사이에 이집트뿐 만 아니라 중동 전체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최근 6년 동안의 개종자 수가 이전의 100년 동안 개종한 숫자 보다 더 많고 사역자의 수도 늘어가고 있다. 그리고 현지의 선교사님이 개종자들에게 세례를 주기 시작했다.

개신교회 예배 : 예배 순서와 형식은 우리와 비슷하다. 전체적으로 예배시간이 더 길다.

### 3. 콥틱 현황

근래 콕틱 교회 안에 놀라운 성령운동과 성경공부에 대한 노력 등이 있었다. 그러나 성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콕터어로 된 성경을 읽거나 기도문을 암송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나 열매가 없다. 더구나 교인들을 빼앗길 것을 염려하는 지도자들은 개신교에 대해 경계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명목상의 기독교인들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난한 기독교인들은 모슬렘으로 개종하면 주어지는 보상에 현혹되거나 모슬렘 이성을 만나 결혼하면 개종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금도 하루에 30~40의 기독교인들이 모슬렘으로 개종하고 있다.

국민의 90% 이상이 이슬람교도인 이집트에서 성탄절이 공휴일로 지정되고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에게 대한고문과 투옥이 사라지는 등 의미 있는 발전 양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 같은 전격적인 변화를 다수의 이슬람신자 들은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갈등의 불씨마저 나타나고 있다. 성탄절이 국가 공휴일로 이번에 처음으로 지정되었으며 그 동안은 성탄절이 되면 이집트의 전통 기독교인 콕틱 교회 신자들에게 한해서 하루 쉬는 것이 허용되었으며 나머지 이집트인들은 평소와 다를 없이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일을 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성탄절이 전격적으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이슬람 교도들의 반응은 이 문제가 양측간에 새로운 갈등의 원인을 제공해줄 가능성도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보수적인 이슬람교 계통 웹사이트인 ‘이슬람 메모’는 공지를 통해 호즈니 무바라크 대통령이 성탄절을 공휴일로 주장한 것은 이집트가 결코 민주적인 사회도 아니며 소수 종족과 소수종교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압력에 굴복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무슬림 형제라는 단체도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 사회에서 성탄절이 휴일이 된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으며 이집트인들의 연간 노동강도에 비해 휴일이 지나치게 많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콕틱교회 측은 정부의 결정을 만시지탄이라고 표현하면서 콕틱 교회측은 그리스도의 승천으로부터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예수의 제자인 마가에 의해 기독교가 이집트로 전파되면서부터 이집트는 성탄절을 휴일로 지켜왔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콕틱 교인이 전 인구의 10%에 불과 하지만 당시 콕틱 교회는 이집트인들의 대다수가 믿는 종교였다.

현재 정부는 이슬람교인에 대한전도 활동을 통해 콕틱교로 개종 시키는 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고 취업에서 차별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콕틱교를 탄압하고 있다. 또 이슬람 강경 주의자들에 의한 테러 활동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

2000년에는 엘 코샤 지방을 중심으로 양 종교간의 대규모 유혈충돌이 발생해 23명이 사망하는 참극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콕틱교를 믿는 상인과 이슬람을 믿는 손님들의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되었는데 이들 사망자들 가운데 두 명을 제외하고는 콕틱교인이어서 이 사건은 기독교인이 이슬람교도로부터 완전하게 당한 사건으로 간주되고 있다.

지난번에는 남부 이집트의 한 마을에서 교회의 종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11명이 부상하고 50명이 구속되는 불상사가 빚어지기도 했다. 인권운동기관과 미국무성 등에서도 보고서를 통해 이집트에서 벌어지는 콕틱교회에 대한 박해 상황이 세계의 주목을 못 끌고 있다고 지적하고 비록 제도적이고 조직적인 박해 양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이집트에서는 콕틱교인이 정부 고위직에 오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콕틱교인들은 지속적으로 개종압력을 받고 있으며 회교 무장세력의 잦은 공격 목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1) 콥틱교회의 두 기둥

엄격한 예배의식과 콥틱 기독교인들을 응집케하는 교황의 권위와 지도록 사막에 은둔하며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배출한 수도원을 영성은 오늘날 콥틱교회를 지탱해주는 힘이다.

콥틱교회 교황인 바바 슈누다(바바란 이집트어로 아버지란 뜻)와 마카리우스 수도원의 마타가 바로 그 두 기둥이라 할 수 있다.

콥틱교회의 슈누다 교황은 어느 때이든 성도들이 질문하는 것을 허락한 최초의 교황이다. 성경 강해 시간이 시작되면 성도들의 질문이 적힌 작은 쪽지들이 교황에게 전달된다. 교황은 가끔 유머를 섞어가며 모든 사람의 질문에 대답한다. 슈누다 교황은 1960년대부터 시작된 콥틱 신학교 교육을 새롭게 확장시켜 나가 신학생 수를 3배나 늘렸다. 1900년에서 1961년 사이에 500명의 신학생들이 배출된데 비해 1964년부터 1994년 까지 배출된 신학생은 2300명에 이른다. 그들 중 주교가 된 사람들도 많다. 한편 마타는 초기 교회 선배들의 엄격한 연구에 기초를 두고 영적인 발전을 도모했다. 많은 이들이 수도사적인 삶에 동참했고 개혁적 수도사 그룹을 형성했다. 마타는 1969년 6명의 고령의 수도사들만이 있는 마카리우스 수도원을 재건해 줄 것을 부탁받았다. 당시 대부분의 건물은 붕괴 됐으며 주위의 땅 또한 방치 됐었다. 현재 마카리우스 수도원은 농업 프로그램으로 풍성함을 누리고 수도사들도 100여명에 달한다. 또 100여권의 콥틱 신앙문서를 발간했다.

### (2) 콥틱교의 모습

- 제사장이 존재하며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드릴 수 있다.
- 세인트(성자)를 존경이상으로 떠받들고 추앙하며 성자에게도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 줄 것이라고 믿는다.
- 그들이 성자를 섬기는 이유
  - 그들은 천국에 있고 하나님께 더 가깝게 있으므로 우릴 하나님께 더 가깝게 해 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이다.
  - 이를 잘 반영하듯 교회 내에는 곳곳마다 성자의 그림들이 많이 걸려 있다.
- 금요일과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
- 개신교 신자에 비해 콥틱 신자들은 성경을 많이 읽지 않는다.
- 하루에 7번 기도를 하며 아그베야를 읽는다.
- 축제 전에 40일 금식하며, 그 외에도 많이 금식한다.
- 부활절 전에는 55일 금식한다.(고기와 유제품을 먹지 않으며 야채와 물 종류만 먹는다.
- 항상 콥틱들끼리 결혼하는 것은 아니며, 가정의 동의 하에 타 신자와도 결혼 가능하다.
- 콥틱 교도들은 아직도 구약시대처럼 살고 있다.
- 세인트-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메신저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었다.

- 카톨릭신자의 수 <개신교 <콥틱
- 1:1 로 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거의 없다.
- ‘카를로스’라는 성직자의 사진을 붙여놓고 자기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 하며, 그를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로 생각한다. 그 사진아래 “너의 출입을 지키리라”라는 말씀을 적어 놓는다.
- 콥틱과 개신교 사이에 빈번한 교류가 있고 특별 행사가 있을 때 서로 가기도 한다.

### 1)비숍과의 인터뷰

- 이집션의 20%가 콥틱(12,000,000)
- 카이로내에 300개의 콥틱교회가 있다.
- 알렉산드리아는 100개
- 하루에 두 번의 미사가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예배가 있다.
-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다들 굉장히 바쁘다.
- 프리스트나 집사가 가르치는 성경공부가 매일 있다.
- 300명의 집사가 있고, 집사에도 레벨이 있으며, 경험과 영적 생활 등의 테스트를 통해서 레벨이 올라간다. confessor들이 많다.
- 카이로 시내에 약 200명의 비숍이 있다. 그들에게 만약 당신이 지금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을 가지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물론이라고 거리낌 없이 대답했다. 그리고 프리스트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빨리 만날 수 있고 또한 그들 신앙의 방향을 잡아준다 라고 덧붙였다.
- 하지만 우리는 프리스트가 사람들에게 프리스트 이상으로 대우받고 추앙 받는 모습을 예배시간을 통해 볼 수 있었고 심지어는 예배를 마치고 프리스트가 손에 들고 있는 십자가 문양에 키스를 하고 만지는 장면도 보았다.

### 2)호삼 과의 인터뷰

호삼은 미네아(어퍼 이집트)출신이며 콥틱 집안에서 자라났다. 콥틱교는 행해야 할 일들이 무 많았다고 그는 고백한다. 그는 혼자 성경을 읽다가 십자가의 구원을 알게 되었고 14개월 전에 개신교로 개종했다고 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콥틱은 개신교가 오직 주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가는 것에 반해 해야 하는 행위가 많다고 한다. 호삼의 가정은 아직 콥틱이지만, 정통파는 아니며, 그래서 호삼이 개신교로 개종 할 때도 특별한 반대는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호삼의 친구인 데이빗도 콥틱교인데 최근에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 문을 두드리신 걸 알고는 있다고 한다.

### 3)카림과의 인터뷰

이 사람의 고향은 수에즈 근처이고, 알렉산드리아에 감금된 적이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콥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슬림에게 전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고 한다. 그들은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집트를 떠나라고



한다고 한다. 카림을 포함한 네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중 바나바라는 친구에게 예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만나 주셨고 바나바는 그 후 크리스찬이 되었다. 처음엔 다들 미쳤다고 했으나, 그를 통해서 카림을 포함한 네명의 친구가 모두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한다.

카림은 아직 신분증 상으로는 무슬림이며, 얼마 전 아들을 크리스찬 학교에 입학시켰다.

#### 4)카이로 콥틱 교회

- 예배시간 : 금요일 7시 -11시
- 성도 : 200 - 300명 . 그러나 매주 나오는 실질적인 수는 120명 정도이다.
- 크리스마스 예배 때는 1/6이었고 특이한 점은 그날 폭죽을 굉장히 많이 터트렸다.
- 그리고 그날 예배 후 파티가 끝나자마자 장례식이 시작되었는데 카톨릭의 장례식과 비슷했다.
- 파티에 온 사람들은 굉장히 깔끔하고 호화로운 옷 차림이었다.
- 모임 : 목요일 6:30분에 유스 미팅이 있다. 금요일 저녁에는 더 큰 유스 미팅이 있다.
- 젊은이들의 예배 참여는 거의 없다. 사제권을 귀하게 생각하는 콥틱 교회에서는

사제(priest)를 빼고 다른 사람이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이다.

- 무슬림에서 콥틱으로의 개종자는 거의 없다.

개종자가 없는 것은 역시 정치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신분증에 나타난 religion을 표시해야 하고 이슬람이 콥틱으로 바꾸면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생기기 때문이다.

비숍의 말에 따르면 콥틱에서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여성들은 종교 때문이 아니라 결혼때문 이라고 한다.

- 찬양 시간에 성도들이 손을 벌리고 찬양하는 것은 원래는 몸을 십자가처럼 만드는 의식이다.
- 비숍이 오니까 비숍을 찬양하는 노래 두 곡 불렀다.
- 비숍이 교회에 도착하니까 종을 울리고 사람들이 모여 들고 아주 분주한 모습이었 다.
- 평신도들은 하나님은 너무 높은 분이셔서 비숍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비숍과 프리스트의 구분 -> 비숍의 모자가 훨씬 크다.
- 남녀가 따로 구별해서 앉는데 그 이유는 여자 때문에 예배가 방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 (3)뽀너스

##### 1) St. Makarius수도원 - A.D. 360

- 6명의 수도사가 시작해서 100명의 수도사와 700명의 자원자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
- 4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를 함.
- 우리나라의 교회지도자들도 영적부흥을 위해 수도원을 보러 많이 방문
- 3개의 오래된 교회가 있고, 예배는 콥틱 언어로 한다.(고대 그리스어 + 고대이집트문자 7개)
- 조개 문양과 물고기 문양의 의미
  - 조개-집이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순례자 상징..

-물고기-크리스천 상징

- 콥틱 교회가 오토덱스답게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를 완벽히 따르는 듯한 모습.
- 오래 된 역사에 대해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

## 2) St. Mark Church

- 성자의 유해와 성화들이 많았는데, 그런 걸 볼 때마다 콥틱교인들이 입을 맞추었다. -> 중 요한 예배의식이라고 함

## 3) Church of 49 martyrs

- 천장과 벽에 십자가가 있었는데, 4개의 십자가 방향은 Mark, Luke, John, Matthew, 3갈래의 십자가는 Trinity, 2갈래로 갈라진 십자가는 예수님의 Divine Nature와 Human Nature를 나타냄

## 4) Church of Abba SKheirul - 4방향으로 지어진 돔이 있었는데, 십자가를 뜻함

## 5) 성 마가 교회

예수님의 12제자중 한 사람이었던 마가 선생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지방에 방문 했을 때 처음으로 구두수선공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구두수선공이 수선을 하다가 손가락을 베어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마가 선생님이 기도로 낫게 해주어 그때부터 이 수선공이 예수님을 영접 하였고 지금 성 마가 교회의 위치가 그 당시 구두 수선공(Ananius- 2대 교황)의 집이었다. 그 후 그는 성 마가 교회의 2대 교황으로 등극하였다.

30년 전에 지금의 모습처럼 크게 만들었다.

성 마가 무덤에 달려 있는 기도편지, 키스하는 행위: 프리스트들에게 상당히 많이 의존하는 신앙을 봄.

## 4.최근 이집트에 대한 선교 관련 이슈 요약

- 2003년 11월에 무슬림 여자가 기독교인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신분증을 조작해서 살다가 외국에 이제 외국에 나가서 살려고 출국하다가 체포됨
- 체포 후 신분증을 만들어 준 사람을 조사해 보니 그런 식으로 2400명이나 만들어 주었음 이 맘이 그 사람들을 다시 무슬림으로 개종시키려 했지만 다들 거절했고 원래 기독교 인이었던 것처럼 살라고 석방함
- 레제크 알라씨 체포 후 석방
- 납치 기독교 소녀 한 달째 불법 감금 상태
- 이집트에서 이슬람 신자들의 콥틱 교회 신자 집단폭행
- 이집트,기독교인들의 물고기 스티커 부착으로 신경전
- 체포된 이집트 개종자 22명 일단 모두 석방

- 개종 돕던 이집트인 석방 후 다시 구속
- 캐나다 종교망명 희망 이집트인 출국 좌절
- 교회..군인과 보안경찰 병력의 급습을 받아..
- 기독교인, 이슬람 여성과 결혼 이유로 이민 외해 출국
- 이집트의 명문 대학 , 위성으로 이슬람 포교 추진
-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수도원 외벽 경찰이 강제 철거
- 이집트 행정당국이 교회의 신축과 입당 봉쇄

## 5.선교 전망

- 학생들과 청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선교적 접근이 필요하다.
  - 모든 학생들이 방과 후에 과외를 하고 대학생들도 과외를 받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과외 선생님 역할을 통해 선교적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양육 할 수 있다.
  - 컴퓨터는 지상의 모든 나라에서 통용되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데 최상의 도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컴퓨터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양육할 수 있다.
  - 카이로 대학은 전체 학생이 약20만 명 정도이다. 그리고 그 중에는 북한 학생 1명, 한국학생 10명, 일본학생 30명 정도가 함께 공부하고 있다. 카이로 대학생들에게 수업을 마치면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물어보니까 그 들 뿐 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길에서 앉아서 농담하고 노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다. 이를 잘 말해 주듯이 카이로 대학 주변에는 유흥문화를 보여주는 업소나 시설들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가지고 접근하여 문화를 통한 선교적 전략이 필요하다.
  - 이슬람은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고 선호하여서 야곱의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정 치유 사역이 필요하고 상담 사역을 통하여 복음으로 가정을 회복시켜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할 수 있다.
- 교회에서 마약 사용자들의 교화를 책임지기도 하는데, 이집트 마약 사용률이 2위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젊은이들이 마약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집트 전체에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취업률이 낮고 비전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음.
- 수도원 지하에 있는 마가의 무덤안에 기도문이 적혀있는 쪽지가 던져져 있음

# 제 3 장

## 사역보고서

## 목차

1. 이스라엘 개관.....40
2. 팔레스타인 개관.....41
3. 팔레스타인 분쟁의 역사.....42
4. 예루살렘 사역보고서.....45
5. 베들레헴 사역보고서.....51

## 1. 이스라엘 개관

(1) 국명 : 이스라엘(State of Israel)

(2) 수도 : 예루살렘 (인구 약 67 만)

주요도시: 텔 아비브, 하이파, 브엘세바

(3) 기후 : 11월부터 4월까지가 일조량이 많다.

총 연강수량은 북부지방은 20-30인치(50-70Cm), 최남단 지역은 일인치(2.5Cm)에도 못 미치는 등 다양하다.

(4) 인구 : 6116533 명 (2003 년)

(5) 민족 : 유대인 80.1%, 아랍계 非유대인 19.9%

(6) 정치

- 정체: 공화제
-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 대통령: 카차브
- 총리: 샤론(실권자)
- 정당: 노동당, 리쿠드당, 샤스당, 메레츠당, 이스라엘 바알리아당 등

(8) 경제 : GDP \$1,060 억(인구당 \$17,000)

(9) 교육 : 5 세부터 18 세까지 학교교육이 의무이며 무료

(11) 종교 : 유대교 60.1%, 이슬람교 14.6%, 기독교 2.1%

(11) 언어 : 히브리어

## 2. 팔레스타인 개관

(1) 국명 : 팔레스타인(Palestine Authority)

(2) 수도 : 라말라(임시 행정 수도)

(3) 인구 : 3,070,000 명 (2000 년)

(4) 민족 : 팔레스타인인, 유대인

(6) 정치

- 정부형태: 자치정부
- 원수: 야세르 아라파트(Yasser Arafat)
- 총리: 야세르 아라파트
- 정당: Fatah, Arab Democratic Union, National Democratic Coalition

(8) 경제 : 43 억불(1997 년) , 1 인당 GDP : 1,480 불

(9) 교육 : 5 세부터 18 세까지 학교교육이 의무이며 무료

(12) 종교 : 회교(수니파)75%, 유대교 17%, 기독교,기타 8%

(11) 언어 : 아랍어

### 3. 팔레스타인 분쟁

#### (1) 팔레스타인 분쟁의 개요

##### 1) 직접적 원인

-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대인들이 신명기와 여호수아의 말씀을 근거로 이 지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여호수아 1:3-4 “내가 곧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헛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 이스라엘 땅으로의 회귀를 주장한 이들을 시오니스트라고 한다.(오스트리아의 저널리스트인 테오도르 헤르츨이 처음 주창) 혹자는 이들을 종교적 광신집단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들은 배타적인 민족주의 운동가들이다. 실제로 유대교회에 다니지 않는 시오니스트가 더 많다.

##### 2) 세계사적 원인

- 열강들의 세력다툼의 희생자
  - 영국: 1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 이후의 중동지역의 분할을 위해 프랑스와 비밀협정을 맺었다. 또한 아랍민족에게는 터키 견제를 위해 독립국가의 수립을 약속한 ‘맥마혼-후세인 서한’을 만들고 유대인에게는 아랍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유대국가의 건설을 약속한 ‘벨푸어 선언’을 작성하였다.
  - 미국과 소련: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아랍측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을 분할하였다. 이는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으로 이어졌고 이때부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크게는 아랍과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분쟁이 시작되었다.

#### (2) 팔레스타인 분쟁의 진행

1947년 팔레스타인 구역을 아랍인 구역과 유대인 구역으로 나눔

1948년 이스라엘 건국

1948년 독립전쟁으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80%차지

1956년 제 2차 중동전쟁(프랑스,영국이 이집트의 수에즈운하 국유화 선언을 계기로 공격하자 이스라엘이 이에 참여하여 시나이 반도를 차지했으나 미국과 소련의 압력으로 철수)



1967년 제 3차 중동전쟁(6일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시나이반도, 골란고원, 가자지구, 요르단강 서안등을 차지함

1973년 10월 제 4차 중동전쟁(욥 키푸르 전쟁)으로 이집트와 시리아가 승리하는 듯 했으나 이스라엘이 우세한 상황에서 휴전 협정을 맺음

1973년 11월 PLO(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국제적 공인을 받게 됨.(석유의 무기화로 아랍 국가들의 위상이 높아진 데에 그 원인이 있다.)

1979년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캠프-데이비드 협정 체결(이집트는 시나이 반도를 되찾고, 이스라엘은 남쪽 국경의 안전권을 확보)

1987년 제 1차 인티파다 시작(민중봉기)- 무력시위와 더불어 납세거부나 불매운동 같은 비폭력 운동도 행해짐

1993년 백악관에서 아라파트와 베긴이 화해의 악수를 나눔

1994년 7월 아라파트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수립을 공식적으로 선언

2000년 9월 알 아크사 사원을 샤론이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되어 거센 항의와 투석이 있자 이스라엘 군이 발포, 제 2차 인티파다 시작

2001년 강경파 샤론이 이스라엘 총리에 당선, 이스라엘의 탄압이 심해지고, 팔레스타인의 테러 또한 심해짐

2002년 하마스에 의한 자살테러가 심화되어, 가자지구는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초토화

### (3)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평화협상 핵심 쟁점 및 문제점

#### 1) 팔레스타인 난민 처리 문제

팔레스타인 난민은 요르단에 140만, 가자지구에 80만, 요단강 서안에 57만, 레바논과 시리아에 37만명 등 총 370만명. 팔레스타인은 이들이 이스라엘이 건국한 1948년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거주한 75만명의 자손으로 고향으로 돌아와 재산을 행사하기를 요구하는 반면 이스라엘은 이들이 돌아올 경우, 이스라엘인이 거주 영토에서 소수로 전락할 수 있으므로 반대함

#### 2) PA의 정치적 자산 부족

PA는 부패하고 독재형태로 장악력에 문제(PA가 과격분자를 체포하거나 공격할 경우, 내전의 가

능성 있음. 대다수의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력시위를 지지하는 형편) → 이스라엘은 PA가 과격분자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치 않고 있다고 비난. 이미 많은 팔레스타인들은 아라파트를 "친 이스라엘주의자"로 간주

3)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내의 이스라엘 정착촌 문제

현 샤론정부의 주된 지지층은 정착민, 따라서 정착촌에서 철수는 정권의 지지기반 상실로 실각할 가능성. 국제법은 점령지의 이스라엘 정착민 20만을 인정 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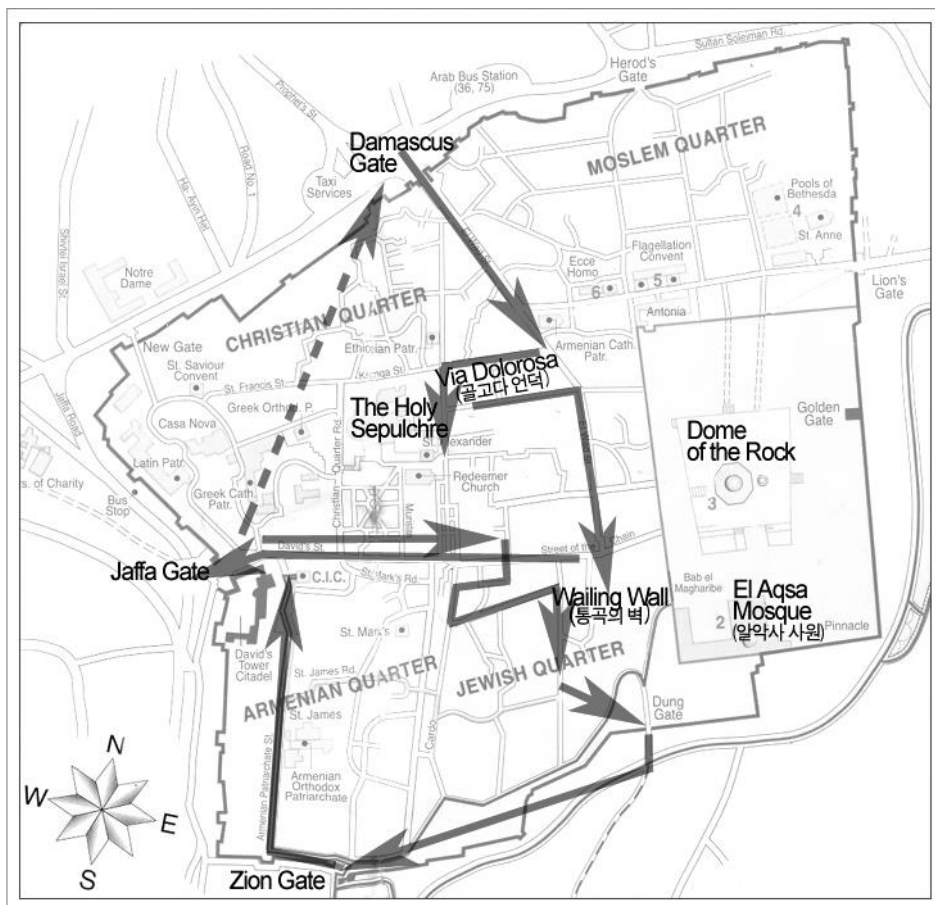
#### 4. 예루살렘 사역보고서

낮아져 가는 성벽 -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메시아를 보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 알 아크사 사원에서 알라의 이름으로 예루살렘과 온 땅을 정복하길 기도하는 무슬림들. 기념품 상의 분주함과 황금빛 풍경에 가려 있지만 언제나 팽팽히 감도는 긴장감. 예루살렘과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지셔서 그들이 스스로 성벽을 부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심을 기대하기에 우리는 그 땅을 포기할 수 없다.

##### (1) 5기 예루살렘 사역보고의 방향

5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리서치는 6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리서치와 금년 여름에 참여하게 될 ‘2004 예수행진’<sup>1</sup>을 위한 정보수집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5기 예루살렘 리서치는 예루살렘 내에서 봐야 할 영적인 장소들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풍습을 조사하며 그들의 갈등이 무엇이며 그들에게 필요한 기도제목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리서치하는 사역으로 전략을 세우고 히브리대학에서 유학하고 계시는 유진상 선배님<sup>2</sup>의 조언을 들으며 움직였다.

##### (2) 일정



▲ 예루살렘 올드 시티 내에서의 이동

시간	일정
10:10 – 10:20	숙소(Alexander Hotel)에서 출발/ 체크포인트 도착
10:55 – 11:02	체크포인트통과 / 베들레헴 출발
11:25	세루트를 타고 Damascus Gate에 도착 (1인당 5세켈)
11:50 – 12:10	Via Dolorosa를 지나 The Holy Sepulchre에 도착한 후 둘러봄
12:23 – 12:50	통곡의 벽에서 기도
13:05 – 13:10	Jaffa gate, 유진상 선배님 합류
13:20 – 14:50	알 아크사 사원이 보이는 식당에서 샐러드와 중동피자를 먹음
14:55 – 15:25	Jewish Quarter를 지나며 유대인들의 풍습에 대해 배움
15:25 – 16:10	통곡의 벽이 보이는 전망대에서 성전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들음
16:40	Zion's Gate
16:40-16:50	Armenian Quarter Jaffa Gate
16:55 -17:30	자벳의 기념품 가게에서 아저씨와 교제를 나눔
17:45 -18:05	Damascus Gate(세루트/1인당 8세켈)
18:30	Bethlehem Check Point(택시를 타고 이동)
18:45	Alexander Hotel

### (3) 사역보고

#### 1)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인들의 생활모습 보기

##### ● 이스라엘 유대인의 이해

- 이스라엘 유대인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 첫째, 세속적인 시오니스트로 유대교를 믿지 않는다. 고대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 삶을 영위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이며 그들의 국가가 강력해지고 그들의 미래가 보다 풍요로워지는 것이 그들의 비전이다.

: 둘째, 전통주의와 시오니즘을 모두 인정하는 종교적 시오니스트로 국가와 율법이 공존할 수 있다고 보며, 고대 이스라엘 영토에 유대인이 정착한 것이 메시아 도래의 전 단계로 그것이 유대인이 이스라엘에 살아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 셋째, 정통 유대교도(하레딤)로 유대국가의 완성은 메시아가 도래하여 유대 율법이 완성되어야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고대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것이 유월절 등의 율법을 지키기에 더 편리한 이유로 만족하긴 하지만, 종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는 없다고 생각한다. 자녀들을 군에 입대시키지도 않으며 동유럽 유대인의 언어인 이디시어를 쓴다.

### ● 유대인들의 신앙 (기독교와 다른 점)

- 구약만을 읽으며 절기와 특별한 행사에 맞는 말씀을 읽는다.
-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며,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보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
- 알 아크사 사원에 하레딤이 들어가지 않는데, 그 이유는 어느 부분이 옛 성전의 지성소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들어가면 죽을까봐 그렇다고 한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음을 인정치 않음)
- 감람산 근처에 묘지가 많은데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다시 오실 때 가셨던 모습 그대로 오셨다는 말씀을 직역하여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감람산에 묻히기 원한다.(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 ● 유대인들의 생활모습

- 고기와 유제품을 함께 먹지 않는다.(성경말씀을 확대해석함)
- 하레딤은 검은 양복에 중절모를 쓰는데, 이것은 옛 동유럽 게토식 삶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18세기 동유럽 신사들이 입었던 복장을 따르는 것이다. 여자의 경우 머리를 박박 밀고 가발을 쓰고 다니는데, 그 이유는 남자들의 율법적인 삶을 방해할까봐 라고 한다.
- 하레딤은 어렸을 때부터 구렛나루를 자르지 않고 길게 기르는데, 이 또한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는 노력이다.
- 건물의 폐허를 흙으로 덮고 그대로 그 위에 새 건물을 짓는다, 그 때문에 Jewish Quarter가 요르단 군에 의해 파괴되었을 때, 로마시대의 길과 유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 유대인들은 비극적인 기억이나 실수등을 없애지 않고 그대로 남겨 놓는다. (Jewish Quarter 안에 요르단군에게 부서져 아치만 남아있는 유대회당)
- 2차 인티파다 이후로 이스라엘의 경제가 어려워져서 통계적으로 어린이의 80%가 극빈층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생활능력이 없는데 아이들을 많이 낳기 때문이다.

### ● 팔레스타인인들의 생활모습

- Mouslim Quarter에 있는 무슬림 집에 메카와 장미꽃이 그려있었다. 무슬림의 하지 절기에 이 때가 되면 메카 그림을 그려놓고 집 문을 열어놓고 나그네들이 쉬어가라고 써놓고 자기는 메카로 순례를 떠난다.
- 처음 Mouslim Quarter에 갔을 때 팔레스타인사람들의 상점가에 하레딤들이 줄지어 지나가는 걸 보고 긴장했는데, 두 사람들 다 너무 자연스럽게 자기 할일에 집중해서 놀랐다. 역시 이들은 적인 동시에 같은 곳에 사는 이웃이다. 베들레헴에서 만났던 한 사람은 두 민족은 싫든 좋든 같이 살 수 밖에 없으니, 빨리 평화가 찾아와서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서 공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옷을 파는 상점에 두가지 주목할 만한 티셔츠가 있었는데, 하나는 ‘Don’t worry, Be Jewish!’라고 적혀 있었고, 다른 하나는 “Don’t worry America, Israel is behind you.”라고 적혀 있었다.

## 2) 영적인 장소 찾기

### ● The Holy Sepulchre

: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교회로 그 동안 여러 번 사람들에게 의해 폭파되고 불에 타는 등 수난의 역사를 겪어왔다. 교회 안에는 콥틱과 아르메니안 교회, 카톨릭과 그리스정교가 함께 있었다. 수난의 역사를 겪고있지만 이스라엘이 이제 평화를 되찾고 회복되어야 하는 것처럼 이 교회도 회복이 필요하다.

### ● 통곡의 벽

: 옛 성전의 서쪽 벽으로 옛날 오스만 제국 때 유대인들에게 가끔 성전을 보러 오는 걸 허락할 때 그 쪽 문을 허락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곳이 성지로 남아있다. 청년들이 성인식을 하는 장소이기도 하며, 많은 관광객들과 순례자들이 이곳에서 서로 다른 기도를 하고 있다. 키파를 쓰고 토라를 읽으며 메시아의 재림을 기도하는 유대인들을 볼 수 있다.

### ● 알 아크사 사원

: 마호멧이 꿈에 본 성전을 그대로 지었다고 하며 이슬람의 3대 성지이다. 1차 인티파다가 일어난 원인을 제공한 장소이기도 하며 이곳이 옛 지성소의 자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유대국가인 이스라엘에서도 무슬림들을 위한 종교의 자유는 인정하고 있어 하루 다섯번 무슬림들의 기도소리가 예루살렘의 하늘을 울린다.

### ● Via Dolorosa

: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고난의 길. 다마스쿠스 게이트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찾을 수 있다. 길 양쪽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식료품가게 등이 있으며, 이 어두운 골목안에 예수님의 모습은 찾을 수 없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골목에 찬양의 소리가 넘치는 것을 기도하며 걸었다.

### ● 감람산

: 올드시티 동쪽에 자리하고 있는 산으로 주변을 무덤들이 둘러싸고 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며 다시 오실 때도 가셨던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말씀을 직역하여 메시아가 감람산위에 재림할 거라고 기대하여 그곳에 무덤을 만들어 놓았다.

## 3)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갈등 보기

### ● 웨스트뱅크와 가자지구 문제

- 웨스트뱅크와 가자지구의 처리문제를 놓고 두가지 목소리가 있다. 하나는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는 민주국가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위협하므로, 두 지역 내의 자치권을 허락하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강경파는 두 지역 또한 이스라엘의 옛 영토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다고 말하며 팔레스타인 지도부 또한 그 제안을 인정하지 않는다.
- 대부분의 시오니스트는 웨스트뱅크를 사마리아와 유대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지금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그들을 힘들게 하지만, 그 땅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과 같으므로 오래 걸리더라도 그 땅을 병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 두 민족 사이에 존재하는 암묵적인 질서와 역할분담

- 많이 차별받고 가난하게 살고 있을 줄 알았던 팔레스타인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직업과 가계를 갖고 표면적으로는 잘 살고 있었다. (세울은 다르다고 한다.)
- 히브리대학에 들어오고 싶은 아랍학생들은 대학에 들어오기 전에 1년에서 2년정도 히브리어를 공부하는데, 그때 외국에서 살다온 유대인학생들과 함께 공부한다. 하지만 학교 내에서 유대인들끼리 무리지어 생활하며 아랍인들끼리도 따로 논다. 학교내에 히잡을 쓴 여학생들도 많다.
- The Holy Sepulchre의 출입을 관리하는 사람은 팔레스타인 사람이며, 예루살렘 내에 좋은 상점을 소유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꽤 많다. 이처럼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권리가 어느정도 인정되고 있다.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그 질서의 선을 넘으면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권리를 어쩔 수 없이 인정한다. 예루살렘의 질서는 팽팽하게 긴장된 실 위에 놓여있는 듯 하다.

### ●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건과 그들의 불안감

- 폭발 사건이 잦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검문이 굉장히 까다롭다.
- 이웃인 동시에 적이 되었다. 팔레스타인 사람은 아침에 유대인 정착촌에서 버스 정류장을 짓고 저녁에는 버스 시트 밑에 폭탄을 놓고 간다.
- 테러가 늘 일어나는 일이라서 무감각할거라고 생각되겠지만, 예루살렘은 좁은 곳이어서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한 반향이 크며, 베들레헴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그 반향이 더욱 크다.

## 4) 예루살렘과 그 백성을 위한 기도제목

- 스트레스와 불안감안에서 사는 그들이 위로 받을 수 있도록
- 양측의 수뇌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정치적 해결점 또한 찾을 수 있도록
- 이데올로기와 종교에 관계없는 일반인과 어린이들이 피해입지 않도록
-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 두 민족이 손을 잡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 5. 베들레헴 사역보고서

### 1. 사역 개요

#### (1) BIG JAIL 베들레헴

이 곳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고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들, 우리를 통해 선포하시고자 하시는 것들. 하나님.. 하나도 빠짐 없이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게 하도록 우리 공동체의 모든 부분을 사용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소서...

“Hear and do what Jesus says..”

#### (2) 5기 베들레헴 사역보고의 방향

- 1) 현지 선교사님을 통해 베들레헴 현지 상황을 듣고 조사하여 그곳의 새로운 사역의 방향을 모색하고 배우고 느낀 것들을 바탕으로 하여 기도하기 위함이다.
- 2) 한국적인 기독교 문화를 현지 청년들과 나누면서 그들과 가까워지고 서로에게 도전을 주기 위함이다.
- 3) 베들레헴 내에서 봐야 할 영적인 장소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의식과 생활상, 풍습을 조사하며 그들의 갈등이 무엇이며 그들에게 필요를 알아보고, 그들의 마음을 공유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위로하기 위함이다.
- 4) 5기가 정탐꾼이 되어 미리 땅을 밟아보며 리서치하는 사역으로 전략을 세우고 다음에 다시 들어올 6기에게 전해주기 위함이다.

#### (3) 사역 기간

2004년 1월 14일 – 2004년 1월 15일 , 2004년 1월 17일

### 2. 사역 보고

#### (1) 2004. 1. 14

##### 1) 난민촌 & refugee camp

1948년(이스라엘 독립) 이후 처음으로 난민이 생기기 시작하여 1967년 6일 전쟁 후로 난민이 급격히 늘게 되었다. 적십자에서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지원해주다가 1949에 UN에서 적십자에 난민지원을 공식적으로 맡겼다. 처음에는 난민들이 텐트

를 짓고 지내다가 1952년에 눈이 많이 와서 사람들이 많이 죽은 후로 건물을 짓게 되었다. 9m<sup>2</sup>의 방에 16명이 자고 25개의 방마다 1개의 화장실이 생겨 매우 불편하고 비위생적인 생활이 이루어 졌다. 11,000명당 일인 의사가 담당하게 하는 등 그 외에도 많은 제약과 억압, 인간 이하의 취급과 이스라엘로부터의 고통으로 인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인티파다를 일으키게 된다.

첫번째 인티파다는 1984년 자발리아 난민촌에서 시작되었고, 두번째 인티파다는 2000년 샤론이 알 아크사 사원을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일어났다. 베들레헴은 1984년 첫 인티파다(팔레스타인 민족봉기)이후에 이스라엘에 의해 6M 높이의 장벽으로 둘러싸여지게 되었고, 이스라엘 군인의 감시에 의해 게이트에 한명 한명 통과하며 출입의 통제를 받아야만 했다. 그 이후로 팔레스타인 인들은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해졌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한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면 탄 세상을 바라보지도 못한 채 그곳에서 끝까지 살게 된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곳 사람들은 베들레헴을 BIG JAIL이라 부른다.

우리가 방문한 이곳 IBDA 센터에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삶과 아픔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그림과 사진, 많은 문서자료들로 남아 있다. 베들레헴에 난민촌이 3개가 있으며, 아테샤 캠프가 가장 크며, 이곳은 교황이 방문한 적도 있었다. 이곳 베들레헴 난민촌 사람들은 매일매일 UNRWA에서 제공하는 생필품과 적십자에서 지원하는 식량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이런 팔레스타인 난민들에게 1991년 오슬로 협정은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게 했다. 그러나 그와 다르게 상황이 더 안 좋아지자 사람들은 더 절망에 빠졌으며 분노했다.

난민촌을 돌아다니며 발견한 것은 남.여 학교가 따로 지어져 있으며 여성을 위한 건물이 있는 것을 보았다. 또한 팔레스타인이 경제적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분에서 이스라엘에게 종속되어있어 독립하기가 힘들다는 것, 독립후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발견하였다.

## 2) 예수님 태어나신 교회

예수님 탄생교회는 6세기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한다. 예수님 탄생하셨던 곳도 보존해놓고 있었으며, 헤롯왕이 죽인 아이들의 무덤도 있었다.

수태교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매끄럽고 아름다운 십자가가 아닌 보기만 해도 거부하고 싶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거칠은 나무로 만든, 그런 십자가였다.

이곳은 한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인티파다 등 전쟁시기에 숨어있으면서 목숨을 구했던 장소이기도 하다.

## 3) 지하드

지하드는 22살로 refugee camp에서 만난 팔레스타인이다. 인티파타 등 많은 전쟁으

로 고등학교를 멈춘지 오래 됐고, 학생인 우리가 부럽다고 한다. 지하드는 그의 실명이지만, 그는 refugee로 불리기 원한다. 그의 말에 의하면 원래 베들레헴에 크리스찬이 70%, 무슬림과 타종교가 30%였는데, 이스라엘을 포함한 크리스찬에 대한 무슬림과 유대인과 정교인들의 박해가 이어짐으로 인해 크리스찬이 30%, 타종교가 70%로 역전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막노동하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못하게 되었다. 이런 이스라엘의 경제 실권 장악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 대부분이 대학을 나와도 할 일이 없으며 실업률이 60% - 70%에 달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정착촌 사람들이 가끔 사냥개와 아이와 총을 들고 나와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이유는 어려서부터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보게 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 4) 한국 문화원 & 강태운 선교사님

기독교인들에게 공격받고 집을 잃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한다는 게 어려워져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NGO활동에 안주하기도 한다. 그래서 강태운 선교사님께선 교육과 문화사역을 대안으로 생각하셨고, 이곳에 한국 문화원인 JOY HOUSE를 세우시고 국가에서도 허가를 받아 사역하고 계신다. 무슬림들을 종교인으로만 보아서는 안된다. 이슬람교는 그들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모든 문화와 풍습을 형성한 삶의 양식이기 때문에, 종교만을 가지고 이곳에서 선교하는 것은 힘들다. 따라서 교육, 문화적 접근이 이들에게 접근하기 쉽고 필요한 방법이다.

아랍 사람들의 특성 상 지도층이 서로 연합하기 힘들고, 각자의 이익을 중시하기 때문에 독립하기가 더 어렵다. 지도층의 의식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민을 통한 선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삶속에서 풍겨나는 하나님을 전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흐름을 알려면 중동을 알아야 한다. 중동문제는 경제와 정치와 종교가 모두 얽혀 있기 때문에 모든 국제사회 문제의 중심이 된다. 기독교와 이슬람의 갈등과 유대교 사이의 미묘한 관계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모두 애간장이 타는 나라다. 어느 한쪽만의 책임이 아니며 양쪽 모두의 회복이 이루어 지도록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것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아래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

(2) 2004. 1. 15

#### 1) 베들레헴 대학

1973년에 세워진 베들레헴대학의 학생은 2000명이며 한달 등록금이 500\$이다.

베들레헴 대학에는 베들레헴대학의 과목으로 주로 교육, 과학, 간호사, 경제 학이 있으며 의과, 엔지니어링은 없어 다른 학교에서 배워야 한다. 기말시험이 평균 60점 미만 학교를 못 다니며, 영어를 잘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Intensive Course가 있다. 또

한 학생들 아르바이트가 힘들어서 학교에서 근로장학금을 제공한다. 학교내에 운동 시설이 하나도 없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히잡 착용의 유.무에 따라 무리가 나누어 지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학생들과 얘기하면서 희망이 없다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그들의 모습이 안타까웠다.

- 베들레헴대학생과의 대화

수많은 기자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적어갔지만 아무런 달라진 게 없다며 비협조적이고 상당히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우리는 간혀있는 상황이 너무 힘들다 너희가 이해할 수 있냐? 해결책이 있냐?는 식의 발언이 대부분이었다. 자신들은 지금 현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없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자신들의 가장 큰 소망은 오직 여기 밖에서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 온 목적이 뭐냐고 물으며 여기 위험한 지역이라고 사람들이 죽일지도 모른다고 농담을 했다.

- 임마누엘 교회

청년들 대부분이 부모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신앙이 전해져 온 모태신앙이다. 다들 자신들이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느낀다고 했다. CCC출신의 YOUTH LEADER 부부가 예배를 이끌고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임마누엘 교회에서의 설교내용 -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주가 되어야 할 것은 물질이 아니라 그 마음이다. 먼저 존경을 드리고 난 다음 드리는 것이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비록 아기였지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경배를 드렸듯이..

- 베들레헴 대학 도서관

‘Behind the Myth’ , ‘God Cried’ 등 도서관의 대부분의 책이 팔레스타인의 역사, 관습, 아픔, 아라파트와 PLO에 관련된 책들이었다. 팔레스타인의 상황에 대해 나름대로 많이 알리려 하고 자료확보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도서관 입구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역사를 나타낸 지도들이 전시되어 있고 전통의상들, 자기들만의 문화를 많이 진열해 놓았다. 도서관 벽에 구멍이 있는데 이스라엘 로켓탄이 뚫고 들어온 자국이다. 이들은 이것을 그대로 보관해 두며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

## 2) 팔레스타인 리서치 센터

팔레스타인 내에서 가장 확립되어있고 정식으로 인정된 리서치 센터이다. 이런 팔레스타인 리서치 센터는 단 하나 밖에 없지만 독일, 이탈리아등 외국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한다. 1990년에 설립됐고, 45명이 일하고 있으며, 팔레스타인의 상황과 변화에 대해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GIS 등 각종 정보기기를 이용한 리서치가 행해지고 있었고, 10개 언어로 된 지도를 단돈 3\$에 배포하고 있었다. 인터넷상에

모든 자료들을 무료로 공개하고 있었다. ARIJ([WWW.arij.org](http://WWW.arij.org))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들을 각 나라말로 번역하여 배포되길 바라고 있다. 강태운 선교사님께서도 우리도 한글로 번역하여서 우리나라 국민들과 지도자들에게 알리길 원하셨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현실적인 사실상을 많이 알리려고 한다. 현재 재정적인 도움이 시급하다. 연구소가 너무 바빠서 미팅 사이에 있는 시간에 잠깐 이야기 하고 왔다.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가 좋지 않지만 어찌되었든 서로 땅을 나누어 살아야 한다면 더불어 살길 원한다. 하지만 열악한 팔레스타인 상황들이 팔레스타인 사람이 더 이스라엘을 멀리하게 만들고 있다. 팔레스타인 중.상위층은 이러한 여러 문제로 많이 이민을 가며, 특히 크리스찬들이 이땅을 많이 빠져나가는 것이 문제이다.

### (3) 2004. 1. 17

#### (1) Korean Day

정식명칭 : 2004 Korean Cultural Day

베들레헴에서 한국문화원인 Joy House를 통해 문화사역을 하시는 강태운 선교사님과 Peace Center와 베들레헴시의 주최로 한국문화의 날 행사가 열렸다. 베들레헴 광장에 소수민족세계연대와 인터콥 여성중보모임, MFR이 함께 모여 예배로 이 땅이 하나님 나라임을 선포함으로 역사적인 하루를 시작했다.

● 1층 전시장 - 한국 전통 문화재(부채, 전통인형, 악기, 하회탈 등)를 전시하고 방문하는 베들레헴 시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해주었다. 다들 신기해 하며 설명을 원했고 특히 자개장식이 된 경대에 관심을 보이며 가격을 물었다. 구입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 했다. 이 전시가 베들레헴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그들에게 외국문화를 접하게 되는 좋은 경험이 되고 비록 간헐 있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과 똑같은 권리를 순간이나마 누리고 있음을 느꼈다.

● 1층 레스토랑 - 인터콥 여성중보모임 집사님, 권사님들께서 한국의 맛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알렸다. 김밥과 불고기, 잡채 1접시를 그들에게 단돈 5세켄(1500원)에 대접했다.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놀랐다. 아이들과 청년들도 많았는데 하나님께 참 감사했다. 그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간헐 살았기 때문에 외국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그들을 위로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 2층 공연장 - '고향의 봄'으로 공연을 시작해서 한국어 찬양과 위썸 댄스로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께 돌리는 예배임을 잊지 않도록, 이 땅이 주님의 것이고 이 백성

들이 주님의 계획안에 있는 백성임을 선포했다. 일본인 플룻 연주자가 나와서 한국과 일본의 과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한국/일본이 과거를 어느 정도 청산하고 이웃으로써의 관계를 회복한 것처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도 평화가 찾아오길 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평화로운 음악을 연주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좋아했던 공연은 태권도 시범이었는데, 태권도는 공격을 위한 무술이 아니고 방어를 위한 무술이라는 말을 확실히 전달했다.

Peace Center에서 행사를 했을 때, 이렇게 베들레헴 시민들이 많이 모인 적이 없다고 강태윤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14년 만에 처음으로 베들레헴 땅에서 자유롭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다고 한다. 우리가 그들의 상황을 바꿀 수 없겠지만, 그들이 위로 받은 기회가 된 것 같다. 또한 선교사님과 그 가정, 그리고 우리들 자신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날이었다.

## 부록

## 목차

1. 기도제목.....117
2. 인터뷰 스크립트.....120
3. 생활정보.....131
4. 이집트 회화.....133
5. 조사표.....135

참고자료.....139



## 1. 기도제목

### (1) 주요 기도제목

#### 말씀

너희가 녀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샀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 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 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요4 : 10)

#### ●므느프 땅을 위한 기도

-므느프에서 탁수연 선교사님께서 6년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외부인으로는 처음으로 현지 목사님으로 안수를 받으셨고 지금은 그 지역 땅에 교회를 건축하고 계십니다. 또한 청년 들을 양육하고 계시는데 탁수연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욱더 풍성히 일어나 며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이 흘러나가므로 죽어있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교회

-현지에 세워진, 그리고 세워져 가고 있는 개신 교회를 통해 교회 안에는 십자가 눈물의 회복 과 교회밖에는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땅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져 갈 수 있 도록 기도해 주세요

#### ●대학 청년

-앞으로 이들이 이집트를 젊어지고 이끌고 나갈 사람들입니다. 먼저 그들이 예수님만이 참으 로 살아계신 그리스도임을 자각하여서 그들을 통해 이집트 땅이 변화될 수 있도록..특별히 므 느프에서 대학을 다니며 탁수연 선교사님께 양육 받고 있는 존, 미나 벳숨...등 므느프 청년들 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 ●크리스천 초등학교

-므느프에 크리스천 초등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 무슬림 가정의 학생들도 이 학교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 학교가 본래의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 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병원

-므느프에 미션 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료사역을 통해 육신의 질병 뿐 만 아니라 그들

의 영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

-므느프 탁 선교사님

-알렉산드리아 문병선 선교사님

-이집트 곳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선교적으로 보면 요즘이 이집트의 아주 중요한 시기이다. 이전의 100년보다 최근 5년 동안의 개종자 수가 더 많고 사역자의 수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의 목사님이 개종자들에게 세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개종자들을 받아주지 않으려 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의 부흥을 준비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역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콥틱교회

-마가 선생님께서 복음을 전할 당시와는 달리 종교제판에서 이단으로 판결이 내려진 이후로 지금까지 복음의 모습이 많이 변질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므로 생령이 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회복될 수 있도록..교회가 교회의 본분을 다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경제적 빈곤을 위해

-길거리에서 며칠동안 쉴 틈 없는 모습으로 휴지와 껌을 팔거나 구걸을 하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집트 땅의 경제와 복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법

-법은 있으나 실제 생활에서는 너무 무질서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신호등은 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고 자동차들이 다닐 때도 그러합니다. 나라의 법이 올바르게 확립되고 사람들의 의식이 정착되어서 질서 있는 사람,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정치

-정치인들이 자신의 사욕을 위해서 권력 싸움에 매여 백성들을 속이지 아니하고 투명한 정책과 정부 운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그리고 그들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고 빈곤층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 지역별 기도제목

### 1) 터키

- 이스탄불에서 단기선교로 사역하고 있는 배성진 형제를 위해서
- 앞으로 터키를 이끌어 나갈 청년들이 공부하고 있는 세계명문대학교인 보이지찌 대학교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터키 땅이 복음화 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터키 땅에 2000명의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데 기독교로 개종한 숫자가 2000명이라고 합니다. 터키 땅에서 사역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더욱더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이스탄불에서 손충성 선교사님 가정이 얼마 전에 부흥교회를 개척하셔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부흥교회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아버지 품으로 하루 속히 빨리 돌아 올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2) 이집트

- 므니프에서 탁수연 선교사님께서 6년째 사역하고 계십니다. 또한 지금 그 지역에 교회를 건축하고 계시고 외부인으로는 처음으로 현지 목사님으로 안수 받으셨다고 합니다. 탁수연 선교사님의 가정과 섬기고 있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욱더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므니프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현지 청년들을 위해서..그들이 앞으로 이집트 복음화의 중추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 최근 6년 동안에 중동으로 선교를 위해 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집트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여러 선교사님들께서 지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 승리하며 영혼들을 건지는 일에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3) 이스라엘

- 베들레헴에서 peace center를 운영하시며 교육과 문화적 접근을 통하여 선교하고 계시는 강태운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 베들레헴에 있는 교회들이 보이지 않는 분열이 심하다고 합니다. 서로 연합하여 교회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청년 크리스천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뜨거워져서 부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으로 인해서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고 베들레헴은 현지에서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에게는 마치 감옥처럼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이들이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칼을 쳐서 보습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

## 2. 인터뷰 스크립트

### (1) 지하드(Jihad)와의 인터뷰

**Jihad(지하드)** : 22살의 청년으로 요르단으로 피난갔던 난민이다. 현재는 학교는 다니지 않고 난민촌 복지 센터인 이브다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이브다 센터를 방문했을 때 인터뷰하는 자리를 가질 수 있었다.

**MFR(이하 M)** : 반갑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한동대학교에서 온 중동 지역 연구 팀입니다. 형제님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지하드(이하 J)** : 올해 22살이다. 우리 가족은 요르단으로 갔던 팔레스타인 난민들 중 하나다. 나는 지금 이브다 센터(베들레헴의 아테샤 난민촌을 돕는 사역을 하는 단체)의 발런티어를 수행하고 있다. 학교를 다니고 있는 여러분이 부럽다. 내 이름은 지하드이지만, refugee(난민)으로 불러주기 바란다.

**M** : 아테샤 캠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J** : 아테샤 난민촌은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한 후로 생긴 곳으로 가장 오래된 난민촌 중의 하나이다. 이곳은 특히 예루살렘과 벳구리온 공항 지역에서 피난온 팔레스타인인들이 많은 곳이다. 아테샤는 팔레스타인,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집트 등의 주변국가와 세계 여러 곳을 포함한 지역의 전체 56개의 캠프 중의 하나이다. 아테샤 캠프는 46개의 마을이 있으며, 행정상 헤브론에 속해 있다. 이곳 근처의 정착촌의 유대인들이 가끔 사냥개와 총을 소지하고 어린 자녀를 데리고 나와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괴롭히곤 한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이유는 어려서부터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M** : 난민촌의 역사를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는가?

**J** : 1948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생긴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잠시 집을 떠나면 다시 올 수 있게 될 줄 알았으나 현재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요르단, 시리아 등 각종 국가로 흩어지고 남은 이들은 웨스트뱅크에 머물고 있다. 이때부터 아테샤 난민촌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들은 6개월 가까이 음식을 조달받지 못했으며 1주일마다 적십자사에서 1주일마다 의료팀이 오는 것이 고작이었다.

1949년에는 UN이 UNWRA(UN 지정 난민기구)의 이름으로 난민촌 지원을 책임지며 도와주게 되었는데 6명당 텐트를 하나씩 지원하여 살게 하였다. 그곳엔 화장실도 없었다. 일주일에 한번씩 음식 배급과 의료팀이 오곤 했다.

1952년에는 눈이 매우 많이 내려 텐트에 살던 사람들이 얼어죽는 일이 발생했다. 그 일을 계기로 UN은 그들이 살 방을 짓기 시작했는데 가로3m, 세로3m의 작은 방을 6명이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4개의 방에 화장실을 하나씩 지어서 살게 했다.

1967년에 6일 전쟁이 터지면서 그 전까지는 요르단령이었던 웨스트뱅크가 이스라엘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로써 난민의 숫자는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1984년 첫 인티파다가 터진 후에 이스라엘군은 이곳 난민촌 둘레에 6m높이의 장벽을 쌓았다. 마치 큰 감옥과도 같았다. 출입문은 하나 뿐이 없었으며 이스라엘군의 통제를 받아야만 했다.

현재 아테샤 난민촌은 역사가 긴 만큼 지원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매일 식량 배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M:** 인티파다(팔레스타인 민족봉기)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J:** 지금까지 큰 인티파다는 두 번 있었다. 첫번째는 1984년 자발리아 난민촌에서 시작되었다. 자발리아에서는 13명의 희생자가 있었으며 이 운동은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그래서 첫째 봉기는 1991년까지 지속되었다.

두 번째 인티파다는 아리엘 샤론 이스라엘 수상이 2000년 무슬림 성지인 알 아크사 사원을 방문한 것으로 인해 터지게 되었다. 이때 샤론이 무슬림들이 신성시 여기는 템플 마운트 안으로 들어오자 그 안에서 기도하던 무슬림들이 저항하며 막았었다. 이스라엘군이 발포하자 그들 역시 신발이나 돌을 던졌고 이때 10명이 사망하고 100명이 부상을 입게 되었다.

**M:** 이브다 센터의 사역은 무엇이 있는가?

**J:** 아테샤 난민촌의 난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그들이 좀더 나은 여건과 상황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는 복지 센터이다. 컴퓨터를 가르치고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특별히 아이들 교육에 주력한다. 그리고 부녀자들도 돈을 벌 수 있도록 수예를 가르쳐서 외부에 팔 수 있도록 한다. 난민촌 안에 탁아소와 유치원, 도서관을 세우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M:** 인터뷰에 응해주어 감사하다. 이브다 센터의 사역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J:** 만나서 반가웠다.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란다.

☞ 지하드는 케피예(팔레스타인 상징)를 목에 두르고 상당히 어둡게 보이는 팔레스타인 청년이었다. 그의 아랍어식 발음의 영어에 알아듣기 힘들었지만 그는 성의껏 이야기해 주었다. 난민촌의 역사가 긴 만큼 상상했던 것처럼 그러한 최악의 상황은 없이 식량배급이나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지하드는 자신을 ‘refugee’라 부르라고 한 만큼 난민에 대한 생각이 각별함을 느낄 수 있었다.

## (2) 카림(Karim)과의 인터뷰

**Karim(카림):** 30대 후반으로 결혼하여 부인과 아들 한 명과 함께 살고 있다. 그는 무슬림으로 태어났지만 개신교로 개종한 자이다. 먼저 개종한 친구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는 그는 학식이 많고 신앙이 깊다. 탁 목사님을 따라 많은 사역을 함께 돕고 있다.

**MFR(이하 M):**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카림(이하 K):** 고향은 수에즈 근처이고, 신분증에는 무슬림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개신교로 개종 하였다. 그리고 무슬림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 되어 있기 때문에 개종한 것 때문에 알렉산드리아에 감금된 적이 있다. 그리고 아들이 한명 있다.

**M:** 콕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는가?

**K:** 콕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슬림에게 전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그들은 그들의 종

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집트를 떠나라고 한다.

K: 왜 빈라덴과 같은 과격단체들이 테러를 하는지 알고 있나?

M: .....

K: 왜냐하면 코란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코란에는 코란을 반대하는 사람을 죽이라고 나와 있고 성전이란 이름으로 살인을 정당화 한다. 빈 라덴이 테러를 하고, 사담 이 미국과 싸우는 것도 그들에게는 테러가 아니며 코란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다.

K: 이번에는 내가 당신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이 지금 죽으면 어디에 간다고 생각하나?

M: 당연히 천국이다.

K: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나? 성경 어디에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나와있나?

M: 요한복음 1장 12절...등등

K: 너희들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지만 무슬림에게 같은 질문을 하면 확신에 찬 대답을 하지 못한다. 그들은 하루에 5번 씩 기도하고 많은 율법들을 지켜도 죽어서 어디에 갈 지 잘 모른다. 모든 게 신의 뜻, 즉 인살라 라고 대답한다.

M: 아....

K: 무슬림은 현재 살다가 죽으면 모두 Hell에 가며, 죄에 따라 그곳에 있다가, 신의 선택에 따라 Paradise에 간다고 믿고 있다. 신은 착한 사람만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무슬림은 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옥 불을 피하기를 원한다. 그들의 첫번째 삶의 목표가 지옥 불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사람의 왼쪽 어깨에는 나쁜 천사가 있으며, 오른쪽 어깨에는 착한 천사가 있어 그날의 착한 일과 나쁜 일을 기록하고 측정한다고 믿고 있다.

M: 그러면 무슬림에 대한 실제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는가?

K: 중요한 것은 relation with Father in love 이다. 무슬림은 신과 인간의 관계가 주인과 노예의 관계이지만, 크리스찬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다. 아버지는 자식이 착하든 좀 못났든 상관없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 행위에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아무리 못나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너가 실수 하더라도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네가 실수를 하더라도 아버지는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무슬림 전도에 중요한 포인트이다. 우리는 모든 성경을 다 외우지 못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무슬림들에게는 모든 행위들을 다 하여도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신이 이미 당신의 일들을 모두 정해 뒀으니까, 당신의 실수도 신이 정해놓은 것이다. 그런데 왜 그게 당신이 책임져야 할 일인가? 이것 또한 코란의 공의롭지 못한 약점 중 하나이다.

무슬림들을 전도하려 할 때 구체적인 질문들은 이런 것들이다.

1. 당신이 지금 죽으면 어디에 가겠소?
2. 신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나요?

M: 그러면 무슬림들의 비전은 무엇인가?

K: 무슬림들의 비전은 알라의 뜻과 코란의 내용에 어긋나는 모든 것들을 없애고, 코란의 가르침대로 무조건 복종하며 사는 것이다. 하지만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에 서로 반대되는 구절이 많아서 자신들이 필요할 때 그 상황에 맞추어 인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코란에는 모든 크리스찬에게 잘해주라는 구절도 있고 크리스찬과 유대교, 불교 모두와 교제하지 말고 믿지 말라라는 구절이 두개다 있어서 자신

들에게 이익이 되는 크리스찬이 들어올 때는 환영하고 자신들에게 피해가 되면 핍박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무슬림들도 우리 크리스찬들 처럼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마호멧의 영이 내려와서 말해준다고 믿는다.

**K:** 혹시 중동이 이슬람 신도 수는 적어도 이슬람세계를 이끌 수 있는 이유를 알고 있나?

**M:** 아랍어를 알고 있기 때문 아닌가?

**K:** 맞다. 이슬람에서는 코란이 쓰인 아랍어를 신성한 문자로 여기고 번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에 무슬림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은 코란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슬람의 리더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중동은 아랍어를 알기 때문에 코란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 세계를 이끌어 갈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이집트가 이슬람 세계의 리더의 자리에 서 있다. 모든 이슬람의 전략이 이집트의 머리에서 다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9.11 테러를 일으킨 오사마 빈 라덴을 아는가?

**M:** 당연히 안다

**K:** 하지만 오사마 빈 라덴은 단지 대표일 뿐이며 얼굴마담일 뿐이다. 실질적 우두머리인 참무 후와리가 이집트 사람이다. 모든 테러나 그 활동 계획들은 이 사람 머리에서 다 나오는 데 이 사람이 이집트 사람이다. 또한 9.11 사건 때 비행기 납치한 18명중 11명이 이집트 인이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모든 이슬람의 전략은 이집트의 머리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M:** 그러면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떠한가?

**K:** 매우 좋지 않다.

**M:** 하지만 이스라엘과 협정을 맺고 수교를 하며 시나이 반도를 돌려 받지 않았는가?

**K:**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의 조약이 이집트에 이익이 되기 때문이고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이집트 인들이 이스라엘을 싫어한다.

**K:** 이스라엘, 시온주의자들의 비전이 무엇인지 아는가?

**M:** 예루살렘의 회복 아닌가?

**K:** 그렇다. 하지만 예루살렘 만이 아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있는 예루살렘에서 카이로까지 차지하는 것이 그들의 비전이고 목표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다 얻기 전에는 전쟁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더욱 더 심각한 것은 무슬림들은 미국의 비전은 모든 이슬람인들이 죽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인식한다.

**K:** 또 이슬람의 비전은 모든 땅의 이슬람 화이다. 그들이 지금 유럽에 진출하고 아시아로 계속해서 진출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슬람의 선교전략은 이렇다 처음에는 평화를 말하며 접근한다. 그 다음 세력이 조금 커지면 인권을 주장하며 그들의 세력을 더욱 넓혀간다. 그러다 자신들이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면 태도가 돌변하며 3가지 중에 선택하라고 한다. 이슬람으로 개종하던지 세금을 내고 계속 다른 종교를 믿던지 아니면 전쟁을 하던지(죽던지, 이 땅에서 나가던지) 중에서 선택하라고 강요하며 본색을 들어낸다.

**K:** 그러면 크리스찬의 비전은 무엇이겠는가?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이고 이 땅 이집트에 왜 왔나?

**M:** 하나님 나라를 위해...복음의 완성...

**K** : 크리스찬의 비전은 이 땅과 하늘 모두의 회복이다. 무슬림은 이 땅만을 차지하려고 하지만 우리에게 주기도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리다라는 구절처럼 하늘나라가 있고 또한 이 땅의 회복이 우리의 비전이고 목표이다.

**M** :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 다음에는 당신의 개인적인 간증을 부탁해도 괜찮은가?

**K** : 물론이다. 나도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당신들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다음에 또 만났으면 좋겠다

☞ 카림의 이야기를 통해 이슬람이 어떤 종교인지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이슬람이 얼마나 거저된 종교인지를,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많이 얻을 수 있었으며 우리의 사전 조사가 많이 부족했음을 상기하게 하였다. 무슬림에서 개종한 카림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으나 또 인터뷰할 기회가 없어서 아쉬웠다.

### (3) 보트로스(Botross)와의 인터뷰

**Botross(보트로스)** : 올해 20살로 미느프에 살며 탁수연 목사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청년이다. 집은 카이로에 있지만 미느프의 공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다. 개신교 가정에서 태어났다.

**MFR(이하 M)** : 소개를 부탁한다.

**Botross(이하 B)** : 올해 20세로 미느프 안에 있는 공대를 다니는 대학생이다. 고향은 카이로이고 졸업 후에 돌아갈 예정이다. 나는 프로테스탄트 가정에서 태어났다.

**M** : 방학은 언제 시작하는가? 방학 중의 계획은 있는가?

**B** : 1월 22일에 시작한다. 방학 때는 성경공부를 하고 기타를 배우고 싶다.

**M** : 게임을 좋아하는가?

**B** : 카멜에게 스타크래프트를 배웠다. 피파 역시 할 줄 안다.

**M** : 학교는 어떤가?

**B** : 공부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낙제가 두번 나오면 1년을 더 다녀야 하는 체제이다. 그러나 우리 대학교는 공대로서는 이집트에서 유명하다. 1900년에 지어져서 1965년에 공대가 되었는데 역사가 길다.

**M** :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가?

**B** : 그렇다. 절반 정도의 학생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

**M** : 졸업 후 계획은 어떤가?

**B** : 글썄..아직 불확실하다. 졸업 후에 취업은 쉽지 않다. 외국인 회사에 취업하기는 더더욱 힘들며,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취업하지 못하고 각자 개인의 조그만 사업을 가지는 일이 많다. 예를 들면 슈퍼마켓 같은.

**M** : 당신은 프로테스탄트인가?

**B** : 그렇다.



M : 우리 역시 프로테스탄트이다. 이집트의 콥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다. 콥트가 프로테스탄트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B : 콥트는 우선 priest가 존재한다. 이를테면 제사장이며 교회와 신도들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을 믿지만 예배는 구약 시대처럼 priest를 통하여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한다. 세인트(saint-성자)의 개념이 있으며 그들을 통하여야만 예수님께 갈 수 있고 그들을 통하여야만 예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받아 주실 거라고 믿는 것이다. 그래서 성자를 숭배하는 경향이 있으며 신도들은 교회의 priest들에게 잘 보이려는 경향이 있다.

콥틱에서는 히브리서 5장 1절 말씀인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M : 그들의 예배는 어떤가? 언제 드리는가?

B : 금요일과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

M : 예배 외에는 어떤 행위를 하는가?

B : 그들은 개신교에 비해 성경을 많이 읽지는 않는다. 대신 독실한 사람들은 하루에 7번씩 기도하며 아끄베이안을 읽는다. 축제 전 40일 금식을 하며 그 외에도 자주 금식한다. 부활절 전에는 55일 동안 금식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고기와 유제품은 먹지 않으며 야채와 물 종류만 먹는다.

M : 콥틱의 축제란 어떤 것인가?

B : 성자의 생일이라든지 예수 탄생의 날이라든지 많다.

M : 개신교와의 관계는 어떤가?

B : 눈에 드러나는 문제는 없다. 갈등의식은 있겠지만 싸우지는 않는다.

M : 콥틱 교도들은 자신들끼리만 결혼한다던데 사실인가?

B :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양가에서 허락한다면 가능하다.

☞ 보트로스와 대화를 통해 현지 젊은이들의 삶과 고민을 엿볼 수 있었다. 그들이 공부에 많이 찌들려 있으며 졸업 후의 불투명한 비전으로 많은 고민과 방황이 있을 수 있음을 알았다. 또한 보트로스는 개신교임에도 불구하고 콥틱 기독교에 대해 지식이 많았다. 아무래도 대다수의 기독교인이 콥틱인 만큼 주위에 콥틱 신자가 많으리라. 미느프 교회의 크리스마스 파티 때도 초청된 사람의 대부분이 콥틱교인들이었다.

#### (4) 호삼(Hosam)과의 인터뷰

Hosam(호삼) : 올해 21살의 대학생으로 역시 미느프의 공대 재학중이다. 이 청년은 콥틱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개신교로 개종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MFR(이하 M) : 소개를 부탁한다.

Hosam(이하 H) : 나는 21살로 미네아(upper Egypt) 출신이다.

콕틱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14개월 전에 개신교로 개종하였다.

M : 어떤 계기로 개신교로 개종하게 되었나? 이야기가 듣고 싶다.

H : 콕틱 가정에서 자라면서 이것저것 해야 할 많은 것들 때문에 답답한 적이 많았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오로지 행위에서 오는 것 같았다. 그러던 중 혼자 성경을 읽다가 십자가의 구원을 깨닫게 되었다. 구원은 오로지 십자가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래서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개종하게 되었다.

콕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도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

M : 가족들의 반대는 없었나?

H : 그리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어머니와 여동생이 콕틱이지만 정통파는 아니다. 그래서 내가 개종할 때 특별한 반대 같은 건 없었다.

☞ 시간이 부족하여 콕틱에서 개신교로 개종한 호삼과의 인터뷰를 충분히 하지 못하여 아쉬웠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건 그분이 하신 일이며 누구의 강요로 인해 개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와 대화를 하며 주님의 일하심에 감사했다.

#### (5) 프리스트 데이빗(David)과의 인터뷰

Father David(데이빗 사제) : 초로에 접어든 콕틱 priest로서 St. George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다.

콕틱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고 싶은 마음으로 인터뷰를 요청하였다. 콕틱은 사제 중심의 교회로서 모든 예배를 사제가 인도하고 교인들의 고해성사를 받는다.

MFR(이하 M) :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Father David(이하 D) : St. George Coptic church에 priest로 있다. 만나서 반갑다.

M : 이집트 내에 기독교인의 비율은 어떤가?

D : 이집트 내에서 약 20% 정도가 콕틱 기독교인이다. 약 1200만명 정도 있다.

M : 그렇게 많은가? 그럼 교회 수는 얼마나 되나?

D : 카이로 내에는 300개의 교회가 있고 알렉산드리아 같은 경우는 100개의 교회가 있다.

M : St. George 교회의 성도 수는 얼마나 되나?

D : 총 2만명의 가정이 등록되어 있으며 3000명의 젊은이들이 교회에 출석한다. 금요일 저녁에 있는 Youth meeting에는 5000~6000명 되는 젊은이들이 참여한다.

M : 예배는 언제 있나?

D : 하루에 2~3번의 미사가 있다. 성경에 나온 모세와 아론처럼 아침과 저녁으로 주요 미사가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예배가 있다. 예배가 많아서 교회 간부들이 상당히 바쁜 편이다. 그리고 매일 priest와 집사들이 인도하는 성경 공부가 있다.

M: 콥틱 간부들의 서열은 어떻게 되나?

D: 교황 아래로 비숍(Bishop)이 있고 그 아래로 proto-Priest가 있고 그 아래로 8명의 Priest가 있다. 나는 그 8명 중 4번째 Priest이다. 우리 교회에는 300명의 집사가 있는데 집사에도 서열이 있다. 경험과 영적 생활 등을 테스트하여서 서열이 올라간다.

M: (밖에 사람들이 줄을 지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저들은 누구인가?

D: 저들은 confessor(고백자)들이다. 고해성사를 하러 왔다.

M: 무엇을 고백하는가? 죄 고백을 하는가?

D: 그렇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한다.

M: 카톨릭과 유사하다.

D: 그렇다.

M: 교회 안에서 청년들의 위치는 어떠한가? 그들의 역할이 있는가?

D: 예배할 때 실질적인 역할은 없다. 오직 영혼으로만 함께한다. 그러나 Youth meeting이 따로 있다. 거기서 젊은이들이 리드하고 찬양도 한다.

M: 무슬림 개종자는 존재하는가? 있다면 얼마나 되나?

D: 거의 없다. 어려움이 많다.

M: 성자를 중요시여기고 그들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D: 우리는 그들에게서 가르침을 얻는다. 또한 그들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들이 죽었어도 영생을 얻어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해 준다고 믿는다. 그래서 우리도 성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성자들은 우리보다 앞서 가신 분들이고 우리의 리더이다.

M: 앞으로의 콥틱 교회의 전망은 어떤가?

D: 콥틱의 세력은 더 커질 것이다.

M: 다수의 콥틱 기독교 여성들이 무슬림 남성들과 결혼해 법에 따라 남편의 종교로 개종한다던데 사실인가?

D: 그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또한 그들이 개종하게 되는 것은 결혼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것이다.

M: 개신교와의 교류는 어떠한가?

D: 교회에 축제가 있는 날,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 개신교와 우리가 날짜가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성도들이 자유롭게 오가며 교류한다. 그들은 우리의 형제이다.

M: 인터뷰에 응해주어 감사하다. 다시 뵈 수 있기를 바란다.

D: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어 감사하다. 나 역시 반가웠다.

☞ 데이빗 사제는 동양인들과의 약속에 조금은 당황한 눈치였다. 우리의 거침없는 질문에 조금 놀라기도 하면서 불안해 보였다. 그래서 옆에 있는 장로가 그의 말을 많이 대신하여 대답했었다. 아쉬움이 남는 한편 우리가 너무 예의없이 행동했는지 반성이 된다. 일반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한 콥틱에 대하여 알 수 있었는데, 특히 무슬림 개종자들이 거의 없다는 말에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 (6) 존(John)과의 인터뷰

존은 올해 21살의 젊은이로 미느프 교회의 청년리더로 섬기고 있는 성실한 청년이다. 목사님의 부재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장도 봐다 주고 워십 댄스도 가르쳐 주는 등 많은 수고를 해주었다.

John: 무슨 책 보고 있어?

MFR: Palesine이라는 책이야.

John: 그거 이스라엘 가져가면 안 좋을 텐데

너희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아랍과 이스라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 너희가 처음에 이스라엘 간다고 했을 때 우리도 많이 놀랐어.

MFR: 이 책은 별 문제를 일으킬 만한 내용이 아닌데

John: 어떤 내용인데?

MFR: ‘조 사코’라는 미국기자가 팔레스타인에 가서 생활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John: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걸

언론 때문에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의 테러만 나쁘다고 생각해. 하지만 언론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인 한 일은 말하지 않잖아?

MFR: 너는 미국을 어떻게 생각해? 싫어해?

John: 미국을 싫어하지는 않아. 나도 기독교인으로써 그들의 청교도 정신을 참 좋게 생각해. 하지만 지금의 행동들은 옳지 않아.

부시 대통령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무언가를 한다는 생각은 틀린 생각인 것 같아.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거야.

MFR: 맞아, 그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거야. 그런 일들 때문에 복음 증거가 힘들지 않아?

John: 힘들어... 미국이 아프간과 이라크를 공격한 것이 무슬림들에게는 기독교세계가 이슬람세계를 공격하는 걸로 비춰지거든.

MFR: 많이 혼란스럽겠다.

John: 너무 심각하게 했나 이거?

☞ 맨 처음 무느프의 미나가 우리의 일정을 물어볼 때, 이스라엘에 갈꺼라고 했더니 얼굴빛이 어두워졌다. 자기들은 친구이고 기독교인이니까 괜찮지만 다른 곳에 가면 이스라엘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했다. 그만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는 아랍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대화 내내 존은 서방언론의 편협함에 대해서 분노했고, 자기가 기독교인인 동시에 아랍세계의 일원이라는 것에 대해 고뇌하는 듯 했다. 터키에서 본 십자군 전쟁의 상처와 더불어 미국의 행동은 이미 중동인들과 기독교사이에 큰 장벽을 만들어 놓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 (7) 팔레스타인 리서치 센터(AIRJ) 소장님과의 인터뷰

소장님의 성함은 Raed E. Abed Rabbo이고 나이는 40대쯤으로 보였다. 베들레헴 안에 있는 리서치 센터의 소장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리서치 팀인 만큼 얻을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았다.

AIRJ([WWW.airj.org](http://WWW.airj.org)) : 1990년에 설립, 45명이 일하고 있으며, 팔레스타인의 상황과 변화에 대해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GIS 등 각종 정보 기기를 이용한 리서치가 행해지고 있었고, 10개 언어로 된 지도를 단돈 3\$에 배포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칼럼과 뉴스가 꾸준히 올라오며, 지도정보도 공개되어 있음

**MFR:** 반갑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온 중동 연구팀입니다. 이 리서치 센터가 하는 일을 알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Abed Rabbo:**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좋을 텐데 갑자기 연락이 되어 잠깐 밖에 이야기 하지 못하겠군요. 죄송합니다.

**MFR:** 짧게나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리서치 센터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bed :** 여기 리서치 센터는 1990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우리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팔레스타인의 상황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외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각국의 기자들이 리서치 센터에 와서 정보를 얻어갑니다. GIS와 GPS 등의 정보기기를 이용해서 지리정보를 구축합니다.

**MFR:** 해외나 이스라엘 내의 다른 지역에도 리서치 센터가 있습니까?

**Abed:** 아닙니다. 이곳 한곳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자료화합니다. 그러나 각지에 나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을 알리려고 있으며, 독일과 이탈리아, 스웨덴 등 많은 나라들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MFR:** 지금 팔레스타인과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Abed:** 음. 우리는 일단 우리의 상황들을 알리고, 전 세계가 팔레스타인에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재정적 도움입니다. 재정적 도움이 해결책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아이들을 교육시킬 학교가 필요하고, 빈곤을 해결할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MFR:** 독립이 되도 힘들 것 같은데, 그런 점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Abed:** 만약에 독립이 되지 않고 지금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의미한 무력투쟁만을 할 것입니다. 지금 어린아이들이 자라면 모두 자살 폭탄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하든 가난하지 않던 자유를 보장 받고 우리의 영토를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사이가 안 좋긴 하지만 이웃입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을 나누어 살아야 합니다.(그렇다고 장벽을 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은 주유소에서 만나고 슈퍼에서도 만납니다. 다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더불어 살고 싶습니다.

**MFR:** 현재 베들레헴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Abed:** 팔레스타인의 고위층과 중산층이 교육문제 때문에 밖으로 많이 나갑니다. 하지만 하층민들은 나

가지 못하며 모든 것이 부족한 이 땅에서 계속 살아야 합니다. 특히 팔레스타인의 크리스찬들이 많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MFR:** 이스라엘에서 온라인 상으로는 어느 규제도 하지 않습니까?

**Abed:** 온라인 상으로 어떤 규제도 없으며, GIS와 휴대폰, 방송 등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알다시피 장벽이 둘러 있고 퍼미션이 없으면 베들레헴 밖으로 나갈 수 없다.

**MFR:**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Abed:** 저희 사이트에 가면, 모든 자료들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미 상황을 바꾸기 위해 많은 것을 시도해봤고, 수많은 기자들과 외국 단체들이 그들을 돕겠다고 나섰으나 이미 50년째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그런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정보를 모으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Abed씨의 노력을 그냥 보기가 힘들었다. 그렇게 메아리 없는 함성을 계속 질러대지 않으면 건딜 수 없는, 팔레스타인은 그들에게 희망 없는 땅이었다. 뭔가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 밖에 없었다.

### 3. 생활정보

#### (1) 기후

##### 1) 이집트

- 겨울(12월~2월)을 제외한 동안은 매우 덥고 건조하다.
- 겨울 동안은 그리 따뜻한 날씨가 아니다. 햇볕에 나와 있을 동안을 제외하면 꽤 쌀쌀한 편이므로 외출시에는 늘 긴팔 소매의 옷과 외투를 지참해야 한다.
- 이집트의 밤 기온은 남쪽 지방에서도 8도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겨울에 시나이산을 오르게 될 경우 밤에는 영하까지 내려갈 수 있으므로 겨울옷은 필수이다.
- 이집트의 겨울은 건조하지 않고 습한 편이므로 빨래가 잘 마르지 않는다.
- 이집트는 건물에 난방 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호텔이 아니면 숙소에 따로 난로를 피우지 않으면 겨울에는 매우 춥다. 그러므로 겨울에 이집트를 방문 할 경우에는 밤에 입고 잘 따뜻한 옷이나 침낭을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 2) 이스라엘

- 11월~3월 : 춥고 비가 많이 온다.
- 4월~10월 : 덥고 건조하다.
- 이스라엘의 겨울, 특히 1월과 2월에 비가 가장 많이 오므로 우산을 지참하는 것은 필수이다.

#### (2) 교통

##### 1) 이집트

- 카이로 시내 : 단거리가 아니면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방문객으로서 편리하다.  
 택시를 이용할 경우 미리 지리를 잘 아는 사람에게(선교사님, 사모님) 행선지를 알리고 택시비가 얼마 정도 드는지 여쭙보고 타는 것이 좋다.  
 택시기사가 외국인에게는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거리에 맞는 가격대를 알고 흥정을 해야 한다.  
 숙소(무жат담)~미단 따흐리르 : 13LE  
 숙소(무жат담)~기자 피라미드 : 15LE
- 알렉산드리아 방문 : 인원이 6명이 넘어갈 경우 조그만 봉고차를 빌리는 것이 좋다.  
 숙소(무жат담)~알렉산드리아 왕복 : 350LE+ 50LE(운전기사 팁)
- 메트로(지하철)를 이용할 경우 : 역에서 가까운 장소를 갈 경우에 이용한다.

1인당 2.5LE 정도(거리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 카이로~타바 국경 : 시내에서 가까운(택시로 3LE 정도) 투르고만 버스 정류장을 (Turgoman bus station)을 이용한다. East Delta Bus 티켓을 미리 구매하도록 하자.  
1인당 74LE

## 2) 이스라엘

- 타바 국경 ~ 에일리엇 버스 정류장 : 택시로 50세켈
- 에일리엇 ~ 예루살렘(central bus terminal) : 1인당 35세켈
- 예루살렘(central bus terminal) ~ 베들레헴 체크 포인트  
: 베들레헴으로 들어갈 때는 팔레스타인 구역이므로 체크 포인트에서 일단 하차하여 여권을 보여 주어야 한다. 버스를 이용할 경우 종착지는 베들레헴 안쪽의 라헬의 무덤이 종착지이다. 라헬의 무덤까지 가게 되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무덤 바깥으로는 못 나가게 하고 곧장 버스를 타고 다시 예루살렘 구역으로 돌아가게 하므로 중간에 버스기사에게 체크포인트에서 하차한다고 미리 말해야 한다. (버스비 : 1인당 4세켈 정도)
- 베들레헴 체크포인트 ~ 예루살렘 다마스쿠스 게이트 : 쉼트(봉고택시)로 1인당 4세켈
- 예루살렘 다마스쿠스 게이트 ~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 : 15인승 쉼트로 190세켈

## (3) 숙박

### 1) 이집트

이집트에 머무를 동안은 무깃담의 탁수연 목사님 댁 근처 건물의 게스트 하우스에서 살았다. 3주가 조금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머물렀는데 상수 형제님에게 물어보고 약 50달러 정도를 나중에 현금으로 더 드렸다.

### 2) 이스라엘

- 알렉산더 호텔(베들레헴)
  - 강태운 선교사님과의 친분으로 저렴한 가격에 묵을 수 있다.
  - 숙박, 아침, 저녁식사 제공 : 1인당 하루 20세켈
  - 체크아웃할 때 팁을 30세켈 정도 지불하자.



#### 4. 이집트 아랍어 회화

● Good morning (아침) - **싸바할 케에르** 응답 - **싸바한 누르**

● Good evening (저녁) - **메세일 케르** 응답 - **메세한 누르**

● How are you? **이자이 왁**(남자에게) **이자이 일**(여자에게)

응답 - **꾸와이스 일 함두릴라**(남자일 때) **꾸와이사 일 함두릴라**(여자일 때)

'꾸와이스'는 '좋다'는 뜻이다 영어로는 Fine or Good.

'함두릴라'는 'Thank God'이라는 뜻이다.

● Welcome - **아흘란 와 싸흘란**

응답 - **아흘란 비크**(남) **비키**(여) **비쿠**(복수)

● Bye - **마앗 썰라마**

● And you? - **와 엔따**(남자에게), **와 엔띠**(여자에게)

● How much does it cost? - **비 캬**

'캬'은 How many or How much 의 뜻이다.

● 모두 얼마 입니까? - **일 헤세프 캬? 꼴루 캬?**

● 비싸다 - **갈리**

● Thank you - **슈크란**

● What is this? - **에 다**

'에'는 '무엇'이라는 뜻이고 '다'는 '이것'이라는 뜻이다.

● What's the name of this? - **다 이스무 에?**

'이스무'는 이름이다(남자 3 인칭이나 it 등을 표시할 때)

- Where are you from? - 엔따(엔띠) 민헨?

'헨'은 Where 의 뜻이고 '민'은 from 이다.

- I'm from Korea - 아나 민 꾸리야

- 천천히,조금 - 슈와이야

- I 'm sorry - 마알래쉬

- No problem - 미쉬미슈길라.

- Yes - 아유와,남 , No - 라

- O.K - 메쉬, 하디르

- 내일 - 부크라, 오늘 - 인 나하르다

- 가능합니까 - 뭉킨

- Finish, done.. - 켈리스

- Go away. Leave - 엠쉬

- More, Too, Also - 카만

- Do you have ---? 안닥(남) 안딕(여)....?

- Let's go(do) - 알라 비나!

- I want - 아나 아이즈(남) 아나 아이자(여)

- I hope, By(If) God's will - 인샤알라

- I understand - 아나 페헨, I don't understand - 아나 미쉬 페헨

- Please(부탁할 때) - 민파들랏(남) 민파들릭(여), 라우 사마흐트(남) 라우 사마흐티(여).

- Just a moment - 쏘히야 와헤다, 이스탄나(니) 슈와이야 라우 사마하트(티)

- 축하할 때 - 마브루크

## 5. 조사표

아래 조사표는 리서치 전 10일 합숙 기간 동안 작성한 것으로 리서치 핸드북에 포함되었던 내용이다. 실제로 이 조사표를 가지고 필드로 나갔을 때 현실과의 많이 다른 점에 부딪히기도 했었지만 좋은 교훈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보다 더 철저한 사전 조사에 기반하여 조사표를 작성하도록 하자.

### (1) 청년들의 의식구조

- 현지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 현지 청년들의 비전은?
- 현지 청년들의 성 의식은 어떠하며, 그들이 갖고 있는 성 문제는 무엇인가?
- 구세대와의 갈등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그 원인은?
- 현지 청년들의 정치의식은 어떠하며, 정치 참여도는 어느 정도인가?
- 현지 청년들은 외국 문화 유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현지 청년들은 외국 문화에 얼마나 익숙한가?
- 현지 청년들이 선호하는 외국 문화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2) 대중문화

- 청년들이 대중 문화의 주체가 되고 있는가?
- 대중 문화의 흐름은 어떠한가?
- 어떤 것이 새로운 유행,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가?
- 청년들 사이에서 자주 쓰이는 유행어나 유편어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청년들은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가?
- 여가 시간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대중 문화에 매스컴의 영향이 많이 미치는가?
- 계층에 따라 향유하는 문화의 수준이 다른가? 어떻게 다른가?

### (3) 사회, 경제

- 종족(이집트인, 베두인, 그리스, 누비아인 등)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은 있는가?
- 어떤 양상으로 갈등이 나타나며, 이 현상은 심각한가?
- 어떤 직업에 많이 종사하는가?
- 어떤 직업에 종사하기를 원하는가?(인기있는 직업이 무엇인가?)
- 한 도시라도 구역적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 집중적으로 육성되는 산업이 무엇인가?
- 문화시설의 종류는 얼마나 되며, 어떤 것들이 있는가?
- 빈부의 차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가?

사회 전반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계층은 어떤 계층인가?  
또는 어떤 종족이 영향력이 있는가?  
문자 해독률은 얼마나 되는가?  
문자 해독률은 빈부격차나, 민족간의 관련이 있는가?  
이것들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있는가?  
대학생들이 사회, 경제 분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는?

#### (4) 교육

이집트의 대학 진학률은?  
중학교가 2/3부제를 시행한다는데 사실 여부와 이유와 그 문제점은?  
공교육 붕괴가 심각하다던데 그 실태는?  
그 영향으로 과외가 일반적이라는 그 영향은 어떠한가?  
이집트 기준으로 일반적 과외비는 얼마나 하는가?  
대학 진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대학 서열이나 입시 경쟁은 어떻게 되는가?  
중학교 때부터 성적에 따라 차별적이라고 했는데 사실인가?  
그것에 대해 사회적 인식은 어떠한가?  
우리나라처럼 학원주의가 팽배해 있는가?  
학원폭력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는 어떠한가?  
학교 선생님이 과외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사회적 인식은 어떠한가?

#### (5) 종교

무슬림 젊은이들에게 이슬람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이슬람, 콥틱, 개신교 등의 비율은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어떠한가?  
기독교 청년들에게 신앙이 얼마나 삶 속에 들어와 있는가?  
무슬림 청년들은 종교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기독교 청년들의 또래집단 내에서 사회적 위치는 어떠한가?  
그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기독교 문화는 어떻게 발전되어 가고 있는가?  
콥틱 정교회는 실제로 어떤 것인가?

## 참고자료

이집트 한국해외봉사단 : <http://yamasr.hihome.com/>

람세스 킹덤 : <http://www.ramseskingdom.com/>

세계 기독교 역사 : <http://kcm.co.kr/mission/history/>

세계 교회사 : <http://kcm.co.kr/mission/history/>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과정에 대한 논문 : [http://www.israelstudy.co.kr/seminar/yong\\_6.asp](http://www.israelstudy.co.kr/seminar/yong_6.asp)

“이슬람이 다가오고 있다”-유해석 저

한국컴퓨터 선교회 : <http://www.kcm.co.kr>